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2 PM 페이지1 Mac1 CTP-2400-CMYK

이야기로 만나는

내장산국립공원 문화자원

국립공원관리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2 PM 페이지2 Mac1 CTP-2400-CMY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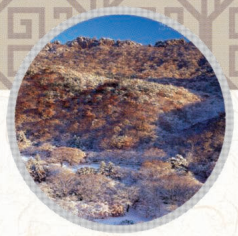
이야기로 만나는 내장산국립공원 문화자원

발행일 : 2014. 12. 31
총 괄 : 양해승_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장
이진범_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
책 임 : 한상식_자원보전과장(내장산백암)
유종섭_자원보전과장(내장산)
담 당 : 신동길_(내장산백암)
하부경_(내장산)
감 수 : 나경수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과 교수)
노기욱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과 교수)
발행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44(공덕동 태영빌딩) 9층
Tel. 02-3279-2700 홈페이지 http://knps.or.kr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2 PM 페이지3 Mac1 CTP-2400-CMYK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2 PM 페이지4 Mac1 CTP-2400-CMYK





내장산국립공원 ····· 8

조선의 역사를 지켜낸 내장산 ····· 19

조선왕조실록을 지킨 용굴 ····· 30

• 영은사지 ····· 36

• 내장사지 ····· 40

천년고찰 백양사를 품은 백암산 ····· 45

흰 양의 전설이 깃든 백양사 ····· 58

백양사 쌍계루 ····· 64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 ····· 68

백양사 극락보전 ····· 72

백양사 대웅전 ····· 76

만암당부도 ····· 79

장성 백양사 고불매 ····· 82

백양사 진영각칠성전 ····· 84

백양사 불사리탑 ····· 86

백양사 암자 ····· 88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2 PM 페이지5 Mac1 CTP-2400-CMYK

호남 곡창지대의 수호신 임암산 ····· 91

호국의 정신이 깃든 입암산성 ····· 104

윤진순의비 ····· 110

임시득 별장비 ····· 112

입암산성 보루성 ····· 114

입암산성 저수보 ····· 116

내장산국립공원 전통제례 ····· 119

부록 ····· 129

내장산의 문헌자료 ····· 130

고지도 속 내장산국립공원 ····· 165

내장산국립공원 옛사진 ····· 171

내장산국립공원 문화자원 ····· 176

참고문헌 ····· 202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3 PM 페이지6 Mac1 CTP-2400-CMYK

이책의 특징

이번에 제작된 내장산국립공원 문화유산 안내서
"이야기로 만나는 내장산국립공원 문화자원"은 이렇게 제작되었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은 내장산 · 백암산 · 입암산의 3개의 산으로 이루어진 국립공원으로 각 산을 중심으로 문화적인 특징과 이야기를 담아 국립공원의 문화적 가치를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내장산 · 백암산 · 입암산 각 산의 문화특징을 대표하는 대표자원을 선정하고 각 자원과 연계된 문화유산을 소개하였으며, 각각 문화유산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발굴하여, 독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쉽게 국립공원의 문화유산에 다가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 지역과 관련된 고문헌 · 고지도 · 옛사진 등 수집된 사료들을 부록으로 담아 활용도를 높였으며, 본문에 소개하지 않았던 문화유산은 사전식으로 정리하여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내장산 · 백암산 · 입암산의 문화유산을 한눈에 찾아 볼 수 있도록 산 별 분포지도를 실어 탐방객들이 현장에서 쉽게 문화유산을 찾아보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3 PM 페이지7 Mac1 CTP-2400-CMYK

일러두기

- 문화재명은 가능한 한자를 병기했다. 지정문화재의 명칭은 '문화재청 표기'를 따랐으며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통합시스템 문화자원 DB의 자원명으로 표기했다.

  예)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 (長城 白羊寺 逍遙大師塔) 보물 제1346호
  백양사 진영각칠성전(白羊寺 眞影閣七星殿) 비지정

- 비지정 문화자원은 가급적 1950년 이전의 자원으로 한정했으나, 특별한 의미가 있고 화재 등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가 복원한 것은 포함시켰으며, 설화, 전설 등은 가능한 구술한 전문을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인물의 경우 성명의 한자와 생몰년을 병기하였으며, 시기의 표기는 왕의 재위 년을 중심으로 표기하고 '서력(西曆)'과 연호 등을 부기하였다.

  예) 윤진(尹軫 : 1548~1597), 고려 숙종 1년(1104)

- 금석문이나 원전의 한자(漢字)를 표기할 때, 분명하지 않거나 없는 글자는 '■'으로 표기했다.



내장산국립공원

내장산은 예로부터 남원의 지리산과 영암의 월출산(月出山), 장흥의 천관산(天冠山), 부안의 변산(邊山)과 함께 호남의 5대 명산으로 손꼽혀 왔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내장산이 조선 팔경 중의 하나이고, '남금강(南金剛)' 이라는 별칭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내장산은 계절마다 다채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지만, 특히 가을 단풍과 겨울의 설경이 아름답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들이 찾는다.

내장산국립공원은 내장사지구와 백양사지구로 나누어지는데 좀 더 세분하면 백양사지구는 다시 백암산과 서북부쪽에 있는 입암산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내장산 · 백암산 · 입암산으로 나누어지는 지형의 차이는 각각의 산을 중심으로 경관자원과 문화자원에도 영향을 주었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3 PM 페이지9 Mac1 CTP-2400-CMYK

내장산국립공원은 최고봉인 신선봉(763m)을 중심으로 북쪽에서부터 월영봉(427m)·서래봉(624m)·불출봉(619m)·망해봉(679m)·연지봉(670m)·까치봉(717m)·연자봉(675m)·장군봉(696m) 등이 내장사를 중심으로 타원형의 연봉을 이루고 있으며, 까치봉에서 서측으로 뻗어나간 능선이 입암산(687m)을 이루고, 중앙부에서 남측으로 갈라진 능선이 상왕봉(741)과 백학봉(722m)을 따라 백암산을 구성하고 있다.

내장사를 중심으로 한 산지는 비교적 단단한 반상유문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의 분지를 이루는 지역은 유대상유문암 및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비교적 풍화에 약해 침식이 활발한 곳이다. 이러한 암석의 차이로 인해 현재의 지형이 형성되었다.



내장산의 가을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3 PM 페이지10 Mac1 CTP-2400-CMYK



내장산국립공원은 전라남북도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생태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공원자원이 산재해 있다. 특히 문화자원의 경우 백양사 · 내장사 등 대규모의 사찰과 암자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문화는 물론 입암산성을 중심으로 한 관방유적과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고개와 옛 교통로에 전해지는 이야기와 전설 등 다양한 문화의 보물을 가득 담고 있다.



학바위에서 바라본 백양사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3 PM 페이지11 Mac1 CTP-2400-CMYK

기록으로 찾을 수 있는 내장산국립공원의 역사는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 처음 등장하는데 삼한시대 축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입암산성에서 고려 고종 43년(1256), 몽골군을 송군비(宋君斐 : 생몰미상)가 맞서 싸워 대승을 거두었다를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크게 내장사지구와 백양사지구로 나누어지는 내장산국립공원은 문화유적 분포도 이와 비슷하다. 내장사지구는 내장사를 중심으로 용굴, 기름바위, 석란정지, 불출암지 등의 명소가 있으며 백양사지구에는 명승인 백학봉 자락 아래 1,3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양사와 운문암, 약사암, 청류암, 천진암 등의 불교 문화유산과 입암산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성곽 유적이 자리잡고 있다.



입암산 갓바위



내장산국립공원은 1971년 11월 17일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지정되었는데 그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1.11.17	국립공원 제 8호 지정(건설부고시 제 101호)
1973.12.12	공원 기본계획 고시(건설부고시 제 120호)
	(건설부 공고 제 121호) 1,640㎢
1987.08.05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북부, 남부관리사무소 개소
1991.04.23	국립공원관리공단 내무부 이관
1997.08.30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관련 국토 대 청결운동 실시
1998.02.28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이관
1998.07.02	내장산북부 탐방안내소 개관
2003.08.30	공원 구역 변경:81.715㎢(증 10.43㎢) (환경부 고시 제2003-142호)
2004.01.30	국립공원관리공단내장산사무소, 내장산남부사무소로 명칭 변경
2006.11.22	내장산사무소 → 내장산사무소(변경없음)
	내장산남부사무소 → 내장산백암사무소(명칭변경)
2007.10.05	내장산사무소 →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명칭변경)
	내장산백암사무소 →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명칭변경)
2010.09.02	공원구역변경: 80.708㎢(감 1,007㎢) (환경부 고시 제 2010-113호)



1978년 백양사 매표소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3 PM 페이지13 Mac1 CTP-2400-CMYK

시기별 내장산국립공원의 변화

1. 개발 주도의 정책 이념기 (1971~1975)

1971년에서부터 1975년까지는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되면서 내장산국립공원이 지정되었던 기간이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국가적인 사업으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진입도로 및 접근도로가 포장되고 기타 편의시설도 개선될 수 있다는 당시의 사회적 여건과 지역주민의 기대 때문에 주민의 일치된 의사로 공원지정을 희망하였다.

이 시기 공원 정책은 지역개발 성격이 강하며 공원 초입의 집단시설지구 건설, 주요 자원지역의 진입로 개설 등 대단위 도시적 시설설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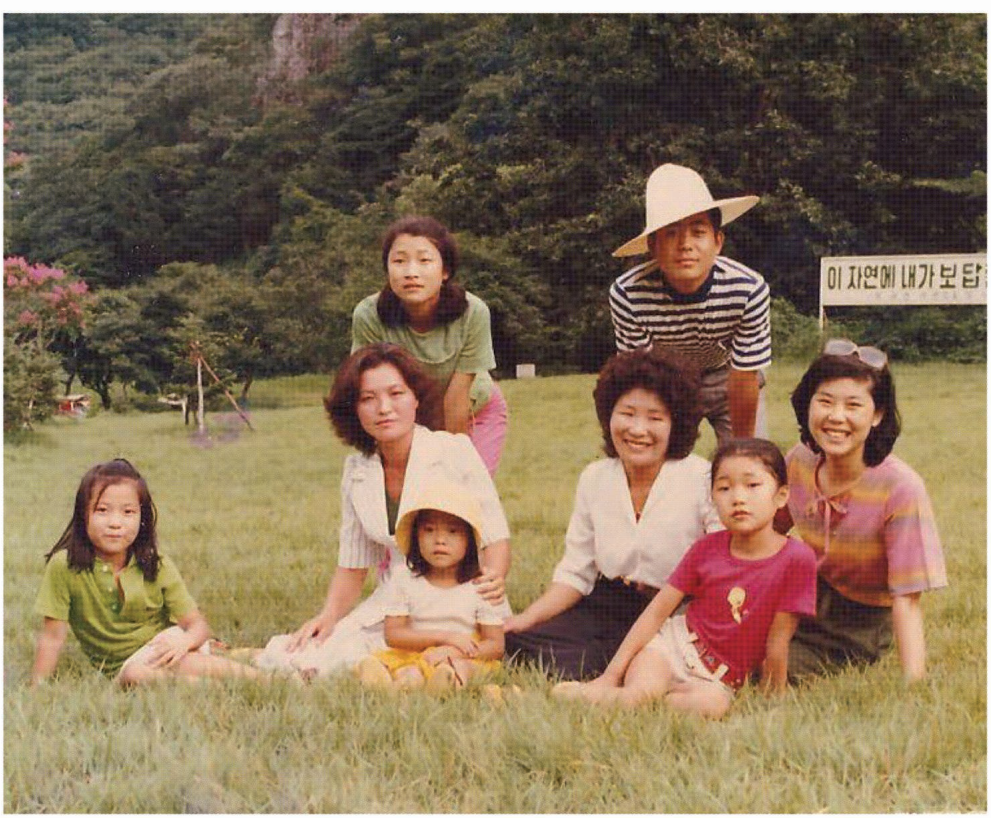


1974년 내장산국립공원 상가모습



2. 보호 위주의 정책 이념기 (1976~1980)

자연보호운동이 시작된 70년대 후반기로서 1975년 자연보호헌장이 선포되는 등 정부주도의 국민운동이 전개되자 국립공원의 관리정책 방향도 이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시절에는 탐방객 이용 편의시설로서의 숙박, 주차장, 화장실 등 최소한의 시설은 공원자원이 비교적 부실한 지역에 극히 제한적으로 마련하였고 쓰레기통과 화장실을 너무 많이 배치함으로써 공원 내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내장산국립공원 직원들은 당시 병충해방제 작업과 내장산국립공원 잔디밭 조성 등 자연보호 활동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1978년 조성된 내장산국립공원 내 잔디밭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3 PM 페이지15 Mac1 CTP-2400-CMYK

3. 이용주도의 정책 이념기 (1981~1986)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 여가 관련 사업의 발전, 도로 여건의 대폭 개선, 자동차 보급, 보도매체를 통한 자연경관의 홍보, 정책적 유도 등으로 본격적인 대량 여가시대를 맞게 된다. 보호 위주의 이념 아래 시행해 오던 이용과 탐방객의 제한으로는 국민의 이용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어 공원의 자원을 해치지 않는 한계에서 최대한 국민의 이용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지금까지 금기해 왔던 국립공원 내 탐방도로의 개설 및 확충, 자동차 관통도로의 개설이 이루어지고, 내장산국립공원 야영장도 이 시절(1984)에 조성되었다.



1980년 백양사 경내에 있었던 우마차



4. 전문화 관리 개념 도입기 (1987~2003년)

1987년 7월 1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치된 이후 국립공원 개발사업은 사업의 양적, 질적인 면에서 종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그동안 연평균 100억 미만의 투자규모가 83년 139억, 97년에는 446억으로 계속 증가하면서 공원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주차장, 야영장, 안내표지판 등 탐방편의 시설도 갖춰진다. 그리고 공원관리는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자연보호 분야는 생태계 복원 사업, 자연자원 조사, 자연관찰로 조성 등이 이루어진다. 공원시설의 증가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할 공원시설물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관련 분야 예산도 증가하여 화장실, 안내표지판, 야영장, 주차장 등 타 시설의 개 · 보수비로도 사용되었다.



1987년 백양사 극락교 준공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3 PM 페이지17 Mac1 CTP-2400-CMYK

5. 고객중심의 질적 서비스 강화 시기 (2004년 ~ 현재)

생활수준 향상으로 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기대수준이 높아져갔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국립공원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보고 즐기는 관광 뿐만아니라 자연에서 배움을 얻고 갈 수 있는 국립공원을 만들고자 2004년 자연환경안내원 제도를 도입하고 여러 자연해설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다. 또한 탐방안내소 내 휠체어, 유모차 대여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기념일에 맞추어 다양한 행사도 실시하였다. 또한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손쉽게 공원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홍보분야 업무도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갔다.



내장산국립공원 지역사회 공헌 활동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3 PM 페이지18 Macl CTP-2400-CMYK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3 PM 페이지19 Mac1 CTP-2400-CMYK

조선의 역사를 지켜낸 내장산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3 PM 페이지20 Mac1 CTP-2400-CMYK

조선의 역사를 지켜낸 내장산

'호남의 금강' 이라 불리기도 하는 내장산은 예부터 조선 8경의 하나로 이름나 있으며 『동국여지승람』에서는 지리산, 월출산, 천관산, 능가산(변산)과 함께 호남 5대 명산으로 손꼽힌다. 지금도 내장산은 사계절마다 다른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탐방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러나 내장산은 산의 겉에서 보는 것보다 산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많다. 숨겨진 것이 무궁무진해 마치 양의 내장 속에 숨어들어 간 것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처럼 내장산은 많은 굴곡의 계곡이 있어 아무리 많은 인파가 몰려와도 계곡 속에 들어가면 어디에 숨었는지 보이지 않는다. 실제 임진왜란 시기 조선왕조실록과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계곡 산벽에 위치한 용굴에서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내장산의 이러한 지형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내장산' 이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한 셈이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3 PM 페이지21 Mac1 CTP-2400-CMYK

장관을 이루는 9개의 고봉들의 이야기

내장산은 월영봉(月迎峰), 서래봉(西來峰), 불출봉(佛出峰), 망해봉(望海峰), 연지봉(蓮池峰), 까치봉, 신선봉(神仙峰), 연자봉(燕子峰), 장군봉(將軍峰) 등 총 9개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해발 600~700m의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봉우리들과 계곡이 태극모양을 이루는 독특한 형세를 가지고 있어 '산태극수태극(山太極水太極)' 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산줄기는 추령에서 서래봉으로 즉 동쪽에서 서쪽으로 휘어감고, 물줄기는 신선봉과 연자봉에서 발원하여 동북쪽을 흘러 산과 물이 모두 태극모양을 이루고 있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3 PM 페이지22 Mac1 CTP-2400-CMYK

제1봉인 월영봉(427m)은 서래봉의 남맥이며 옛 월조암의 주봉으로 내장 9봉 중 가장 낮은 봉우리로 추령에서 올라오는 달을 감상할 수 있다.

제2봉은 내장산의 대표경관인 서래봉(624m)으로 내장산의 북쪽을 두른 암산이다. 암봉(岩峰) 모양이 마치 농기구인 써래처럼 생겼다 하여 "써래봉"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달마조사(達磨祖師)가 양(梁)나라에서 왔다하여 '서래(西來)' 라고 쓰기도 한다. 서래봉은 약 1㎞의 바위 절벽이 그대로 하나의 봉우리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기묘한 바위절벽 아래로 아름드리 단풍나무가 둘려 있어 마치 여인이 고운 치마를 입은 듯한 자태이다.

제3봉인 불출봉(622m)은 서래봉 줄기의 서쪽 끝에 있는 봉우리를 이르며 원적암의 최고봉이다. 정상에서의 조망이 으뜸이라 하여 불출운하(佛出雲河)라고도 하며 남쪽 암벽에 "내장풍악(內藏風嶽)"이라는 각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예부터 얼마나 좋은 경관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불출봉에 안개나 구름이 끼면 그 해 가뭄이 계속된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제4봉인 망해봉(679m)은 불출봉에서 서남간에 뻗어있으며 연지봉 사이에 솟아있는 봉우리이다. 내장산 안쪽으로 먹뱀이골이 잘 보이며, 바깥으로는 용산저수지와 호남평야는 물론 맑은 날이면 정상에서 서해를 조망할 수 있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3 PM 페이지23 Mac1 CTP-2400-CMYK

제5봉인 연지봉(670m)에서 발원하는 내장산 계곡물은 서래봉을 돌아 내장호를 이루며 동진강 줄기의 근원이 된다. 연지봉에 구름이 끼면 비가 온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제6봉인 까치봉(717m)은 내장산 서쪽 중심부에 있는 2개의 바위봉우리로, 봉우리의 형상이 까치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과 같다고 하여 까치봉이라 한다. 백암산을 연결하는 주봉이며, 내장 9봉이 까치봉을 중심으로 대체로 동쪽을 향해 이어지면서 마치 말발굽 모양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의 형국을 하고 있다.

제7봉인 신선봉(神仙峰, 763m)은 내장 9봉 중 가장 높은 봉우리로 나머지 8개의 고봉들을 조망할 수 있다. 신선봉에는 금선폭포, 기름바위, 신선문이 있으며 경관이 매우 수려하다. 계곡 산벽에는 임진왜란 시기 조선왕조실록과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보관되었던 유서 깊은 용굴이 있다. 신선봉 남쪽으로 가면 순창군 복흥면에 소재하고 있는 구암사를 거쳐 그 너머로 백암산에 닿아 백양사에 이른다. 산정에는 신선들이 바둑을 즐겼다는 평탄한 넓은 지역인 금선대(金仙台)가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와 금선대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으나 그 모습은 잘 보이지 아니하였다하여 신선봉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3 PM 페이지24 Mac1 CTP-2400-CMYK

제8봉인 연자봉(675m)은 이곳에 제비명당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봉우리가 붓끝 같다하여 문필봉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내장사 대웅전 앞에서 연자봉을 바라보면서 글을 쓰면 좋은 문장이 나오며 일류 명사로써 입신양명한다는 전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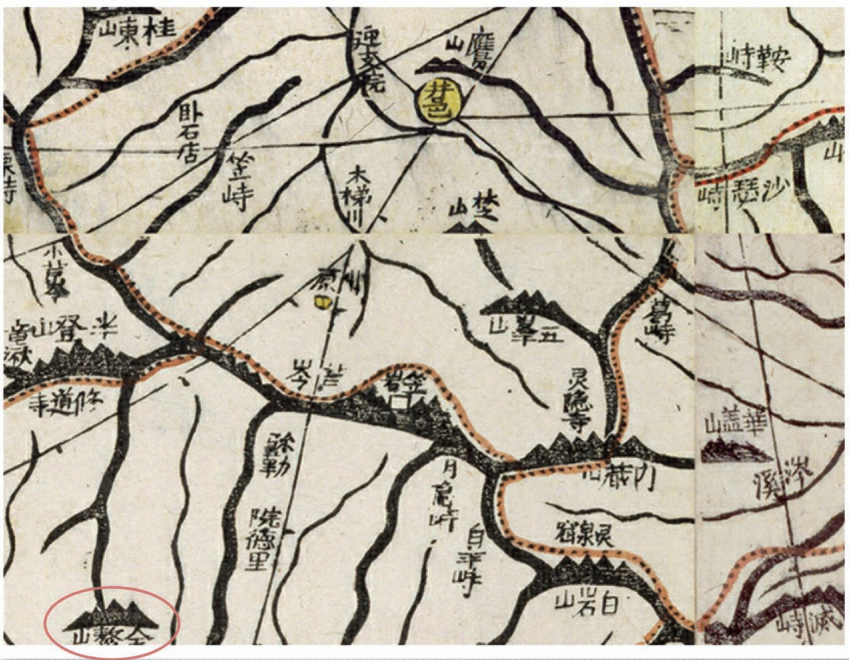
제9봉인 장군봉(696m)은 추령에서 연자봉 중간에 솟아있는 봉우리로 험준하며 수목이 울창하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승병장 희묵대사가 활약했다고 전해지는 험준한 봉우리로 산정에는 지휘대가 있는데 장군대 또는 용바위라고 한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3 PM 페이지25 Mac1 CTP-2400-CMYK

호남 들녘에 생명을 불어넣는 '남쪽 근원의 물'

호남정맥인 내장산에서 솟구쳐 나온 물줄기는 호남의 강과 하천을 이루며 호남 땅을 적신다. 까치봉 및 내장 9봉의 계곡물은 동진강의 발원이 되어 한반도 최대 곡창지대인 호남평야를 이루는 정읍, 김제, 부안의 너른 들판에 생명을 불어넣고 마침내 서해바다로 나간다. 남동사면의 물은 순창군 복흥면에서 추령천(秋嶺川)이 되어 섬진강에 흘러들고, 남서 사면의 물은 전남 장성의 장성호(長城湖)에 흘러들어 황룡강(黃龍江)이 되어 영산강(榮山江) 상류를 이룬다. 『해동역사』에서는 내장산은 동진강의 발원지라 소개하며, 그 물을 남쪽 근원의 물이라 하였다. 이처럼 내장산에 발원한 물줄기는 동진강, 섬진강, 황룡강, 영산강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내장천, 정읍천, 서당천의 이루고 있으며, 현재의 내장저수지, 용산저수지 등의 많은 저수지를 이루게 하였다. 내장산의 물을 가히 '남쪽 근원의 물' 이라 칭할만하다.



대동여지도- 내장산국립공원 부문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3 PM 페이지26 Mac1 CTP-2400-CMYK

영은산에서 내장산으로

내장산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이름이 바뀌는데 이는 산속에 있던 사찰의 이름과 연관이 깊다. 내장사의 전신인 영은사가 백제 무왕 37년(636) 영은조사(靈隱祖師)에 의해 창건되어 산도 그 이름을 따 영은산(靈隱山)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정읍현 편 불우(불전)조 끝에 '백련사를 혹 내장사라고 하는데 내장산에 있다' 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면 그때에 이미 영은사와 내장사는 서로 다른 사찰로 현재의 벽련암을 백련사 또는 내장사라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해동지도』등의 고지도에는 내장산과 영은사가 함께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볼 때 내장산이란 이름은 16세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3 PM 페이지27 Mac1 CTP-2400-CMYK

'내장산' 그 이름처럼 감추어진 역사적 지명들

내장산은 그 이름처럼 그 안에 숨겨진 역사적 지명이 많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일으킨 희묵대사(希默大師, 생년미상~1597)와 연관된 지명들이 곳곳에 남아있어 당시 나라를 지키고자 한 희묵대사와 승병들의 호국정신을 다시금 느낄 수 있다. 대사와 승병이 왜병을 물리치기 전에 머무르던 장군봉과 대사가 승병을 지휘하던 용바위(장군대), 대사와 승병이 왜병을 유인하여 대파한 유군이재(유군치), 대사가 물을 마시고 힘이 세어졌다는 장군샘, 대사와 승병이 축조하였다는 내장산성 등 내장산의 곳곳에는 희묵대사와 승병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3 PM 페이지28 Mac1 CTP-2400-CMYK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3 PM 페이지29 Macl CTP-2400-CMY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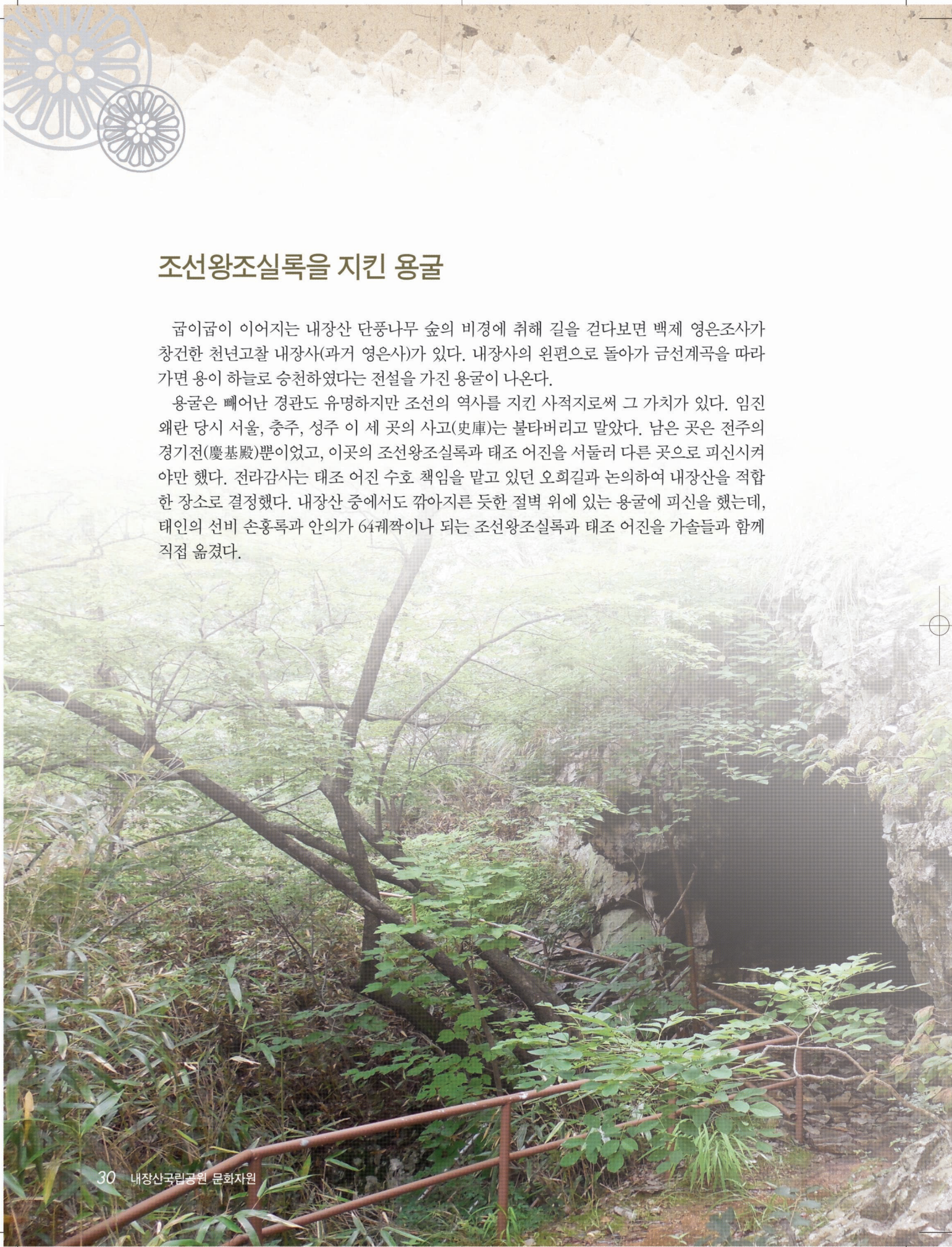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4 PM 페이지30 Mac1 CTP-2400-CMYK

조선왕조실록을 지킨 용굴

굽이굽이 이어지는 내장산 단풍나무 숲의 비경에 취해 길을 걷다보면 백제 영은조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내장사(과거 영은사)가 있다. 내장사의 왼편으로 돌아가 금선계곡을 따라 가면 용이 하늘로 승천하였다는 전설을 가진 용굴이 나온다.

용굴은 빼어난 경관도 유명하지만 조선의 역사를 지킨 사적지로써 그 가치가 있다. 임진왜란 당시 서울, 충주, 성주 이 세 곳의 사고(史庫)는 불타버리고 말았다. 남은 곳은 전주의 경기전(慶基殿)뿐이었고, 이곳의 조선왕조실록과 태조 어진을 서둘러 다른 곳으로 피신시켜야만 했다. 전라감사는 태조 어진 수호 책임을 맡고 있던 오희길과 논의하여 내장산을 적합한 장소로 결정했다. 내장산 중에서도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있는 용굴에 피신을 했는데, 태인의 선비 손홍록과 안의가 64궤짝이나 되는 조선왕조실록과 태조 어진을 가솔들과 함께 직접 옮겼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4 PM 페이지31 Mac1 CTP-2400-CMYK

이후 실록을 은봉암을 거쳐 비래암으로 옮긴 뒤 손홍록과 안의, 희묵대사와 그가 이끄는 승병 등이 암자를 떠나지 않고 실록을 지키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들의 노력으로 실록과 태조 어진은 잘 보관될 수 있었고, 전란의 기운이 잠잠해진 이듬해 묘향산 보현사 별전으로 이안되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보관되었다가 다시 강화도로 옮겨졌다.

이러한 조선왕조실록 보존에 관한 이야기는 과거 문헌과 구전을 통해서만 알려져 왔다. 그러나 임진왜란 당시 유일하게 보존된 조선왕조실록의 역사적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향후 지역중요문화자원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보존 추정터(용굴암 · 은적암 · 비래암)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 2006년 최초로 내장산 용굴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11년에는 조선왕조실록 추정터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 지표조사가 종합적으로 실시되어 은적암과 비래암 추정터가 확인되었다. 이후 2012년 9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기존의 문헌기록이나 전승자료와 부합하는 건물지 및 기와편 · 자기편 등의 출토유물을 확인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4 PM 페이지32 Mac1 CTP-2400-CMYK

실록을 지켜낸 충절 : 손홍록과 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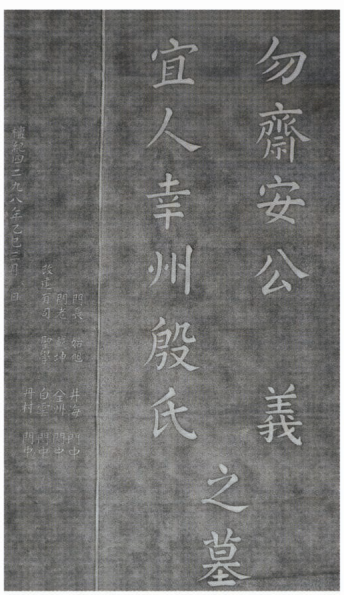
손홍록(孫弘祿, 생몰년 미상)과 안의(安義, 1529 ~ 1596)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조선왕조의 역사는 회복 불가능한 반쪽짜리 역사가 되었을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이미 서울의 춘추관과 충주 · 성주의 사고에 있던 실록은 모두 소실된 상태였고 남은 건 전주 경기전에 있는 실록뿐이었다. 왜병은 파죽지세로 금산까지 이르렀고, 전라감사 이광, 도사 최철견, 부윤 권수, 삼례제방 윤주길, 제독관 홍인상, 참봉 류인, 경기전 참봉 오희길은 태조의 영정과 사고의 실록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안(移安)하여 보관할 궁리를 하였다. 숙고 끝에 정읍의 내장산으로 이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역대 재위한 13명 임금의 실록과 총 805권 614책 및 기타 전적 등을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서는 20여필의 말과 많은 인부들이 필요하였다.



손홍록묘 (정읍시립박물관 사진제공)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4 PM 페이지33 Mac1 CTP-2400-CMYK

하지만 전란의 와중에 인부를 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고, 이에 참봉 오희길은 태인현의 손홍록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였다. 손홍록은 당시 나이가 56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뜻을 모아 돕기로 하였다. 즉시 손홍록은 고향 친구인 안의와 조카 손숭경 및 가솔 30여명과 함께 전주 경기전으로 달려갔다. 이안해야할 짐은 실록본기, 고려사기문, 조선태조수기와 어진 등 총 64궤짝에 이르렀다. 이들은 이 짐들은 전주에서 내장산 용굴암까지 직접 운반하였다. 처음에는 용굴에 보관하였던 실록과 어진은 이후 더 깊숙한 비래암으로 옮겨졌다. 이때 무사 김홍무, 승병장 희묵대사가 이끄는 승병 1000명의 도움을 받았으며 안의, 손홍록이 370여일 동안 번갈아가며 실록의 곁을 지켰다. 실제 실록의 상태를 보러온 병조좌랑 신흠은 실록이 무사히 있음을 확인한 후 이들의 노고와 충성심을 칭찬하고 감탄하였다.



안의묘지석 탑본
(정읍시립박물관 사진 제공)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4 PM 페이지34 Mac1 CTP-2400-CMY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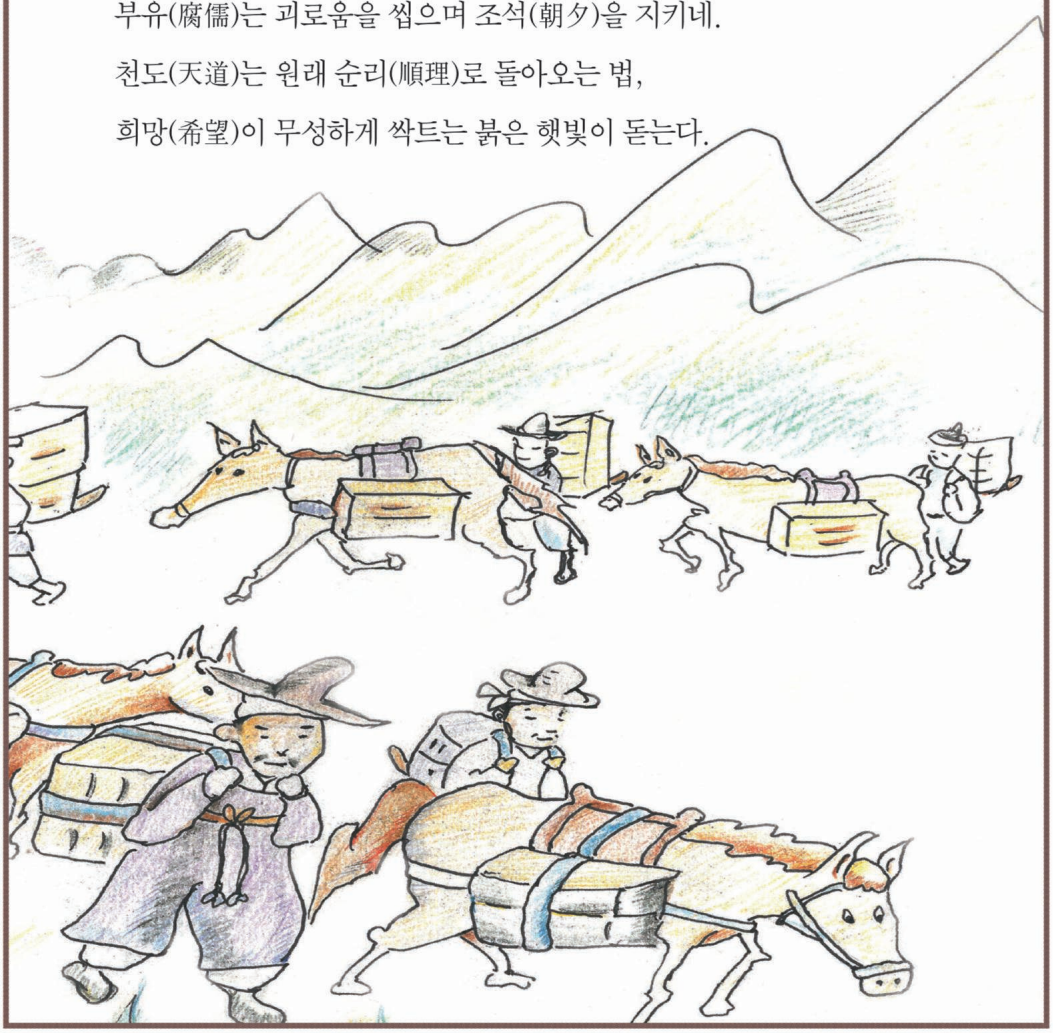
전란의 기운이 잠잠해진 이듬해 조선왕조실록과 어진은 정읍, 아산, 강화도를 거쳐 묘향산으로 이안된다. 묘향산 보현사 별전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보관되었다가 다시 강화도로 옮겨졌고 원본을 바탕으로 5부가 더 간행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이들의 충의는 태조의 어용을 호종할 때 지은 慷慨今成四韻(강개금성사운)이란 시를 보면 더욱 느낄 수 있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4 PM 페이지35 Mac1 CTP-2400-CMYK

성군(聖君) 신군(神君)이 계승하여 온 2백년에,
종묘사직(宗廟社稷)이 비린 먼지에 잠길 것을 어찌 알았으리오.
쓸쓸한 진전(眞殿 : 어용(御容)을 말한다.) 기복(岐卜)에 깃들이어 있고,
돌돌(咄咄)한 전류(前旒)는 칠빈(漆濱)에 붙이어 있네.
의사(義士)는 창을 메고 비와 눈을 모르고
부유(腐儒)는 괴로움을 씹으며 조석(朝夕)을 지키네.
천도(天道)는 원래 순리(順理)로 돌아오는 법,
희망(希望)이 무성하게 싹트는 붉은 햇빛이 돋는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4 PM 페이지36 Mac1 CTP-2400-CMYK

영은사지(靈隱寺址)

영은사는 백제 무왕 37년(636)에 영은조사가 50동의 큰 절을 세웠다는 기록으로 그 역사를 시작하였고, 그 뒤 고려 숙종 3년(1098)에 행안선사가 중창하였다고 한다. 중종 34년(1539)에 내장산에서 일어난 승려들의 난동으로 내장사(지금의 벽련암)와 함께 불탔다고 하지만 사찰의 소실과 폐사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후 명종 22년(1567)에 희묵대사가 법당과 요사를 지으면서 이름을 내장사로 고쳐 불렀다고 하지만 명칭 변경의 정확한 시기는 아직 논란거리이다.

근래인 1938년에 매곡선사가 대웅전을 중수하고 명부전과 요사체를 신축했으나 6·25전쟁 당시 방화로 불탔다.

정부의 국립공원 개발계획으로 일주문(1973년), 명부전(1975년), 정혜루(1978년)를 다시 지었고 1979년에는 인도에서 가져온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봉안하였다고 한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4 PM 페이지37 Mac1 CTP-2400-CMYK

영은사를 재건한 희묵대사

희묵대사(希默大師, 생년미상~1597)는 정읍 내장산 영은사의 스님으로 불에 탄 영은사를 재건하였으며, 임진년(1592)에 경기전 참봉 오희길과 유인, 의사 손홍록, 안의 등이 어진과 제기를 본사의 용굴암에 옮겨 봉안하여 전쟁을 피하였다. 이때 희묵대사는 무리 1000여명을 거느리고 각자 칼과 창을 소지하고 돌을 많이 쌓아놓고, 손홍록, 안의와 힘을 합하여 호위하여 뜻하지 않은 사태에 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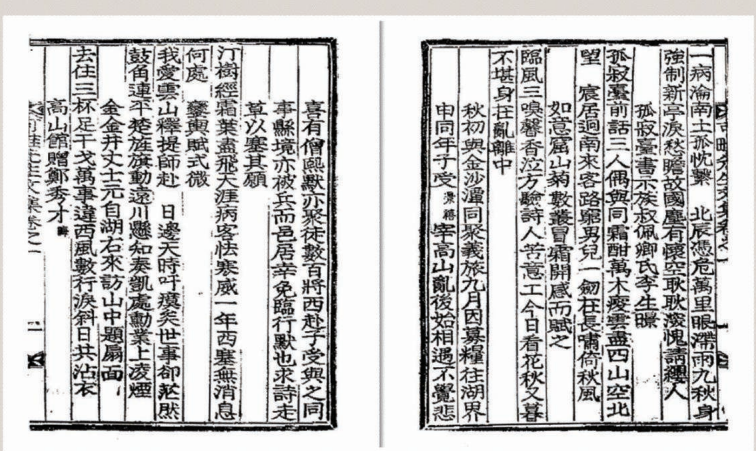
계사년(1593) 7월에 임금이 어용을 아산으로 옮기라고 하교하자, 대사 또한 역시 호종하였다. 정유년(1597)에 왜장 가토 기요마사가 명나라 장군 유정에게 쫓기어 내장사로 도망와 머무르자, 대사는 승병 중 날래고 용감한 수백 명과 약속하고, 산속에 잠복하게 하였다. 대사는 술자리를 만들고 가토 기요마사를 불러 술잔이 몇 차례 돌자 술잔을 던지면서 잠복한 승병들을 나오라고 외쳤다. 모두 나와서 칼을 휘두르며 공격하자 기요마사가 크게 놀라 도망쳤다. 이 때 대사와 승병들은 많은 왜병을 죽이는 전과를 올렸으나 이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4 PM 페이지38 Mac1 CTP-2400-CMYK



실제 희묵대사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 사료로는 병조좌랑, 광주목사 등의 벼슬을 지낸 조익(趙翊, 1556~1613)이 저술한 『가휴선생문집』이 있다.

"(1592년) 가을에 들어서 사담(沙潭) 김홍민(金弘敏, 1540~1594)과 함께 의병들을 모았다. 9월에 군량미를 얻기 위해 호남 땅으로 갔다. 동년(同年, 같은 해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인 자수(子受) 신경희(申景禧, 생년미상~1615)가 고산(高山, 지금의 완주군 일대)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난이 일어난 후 처음으로 만났다. 얼마나 슬프고 또 한편으론 기뻤는지 모른다. 희묵이라는 스님도 (승병) 수백 명을 모아 장차 (임금님이 있는) 서쪽으로 떠나려 해 자수와 더불어 일을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 (고산)현 경계도 왜병의 침탈을 받았지만 다행히 읍은 무사했다. 길을 떠나려 하는 차에 희묵 스님이 내게 시를 요청하므로 일필휘지로 한 수 써주었다."



가휴선생문집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4 PM 페이지39 Mac1 CTP-2400-CMYK

또한 고창 출신의 호남실학자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의 『이재유고(頤齋遺稿)』에는 실록과 어진을 수호하던 희묵대사의 모습이 나타나있다.

"먼저 실록을 옮겼다. 보자기에 싸고 주머니에 넣은 다음 나무 상자에 넣어 가지고 갔다. 7월 9일 다시 어진을 옮겼다.… 실록은 먼저 용굴에 이안하고 이어서 어진을 옮겨 모두 다 이곳에 이안했다. 실록을 은적암에 옮겼다가, 다시 더욱 험하고 떨어진 곳을 찾아 비래암으로 옮겼다. 9월에 어진을 용굴로부터 다시 실록과 함께 (비래암으로) 이안했다. (김)홍무 · (안)의 · (손)홍록 등 3인과 희묵스님 등 4~5명이 근방의 정재인(呈才人, 中人 이하의 계급) 100여 명과 함께 낮이나 밤이나 종일토록 암대(庵臺)를 떠나지 않고 지켰다."



희묵대사 추모 다례재

내장사지(內藏寺址)

『신증동국여지승람』 '정읍조' 에는 "백련사 혹은 내장사 재내장산(白蓮社 或은 在內藏山)"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백련사는 내장사라고도 말하며 내장산에 있다." 라는 뜻이다.

원래 명칭은 백련사로 백제 의자왕 20년(660년)에 유해선사(幼海禪師, 생몰년미상)가 세웠다고 하나 언제부터 내장사라고 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백련사와 내장사라는 명칭을 번갈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언제부터 암자로 격하됐는지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시대 추사 김정희가 사명을 백련사에서 벽련사로 직접 고쳐 걸었으나, 6·25 전쟁 당시 불에 타 소실되었다.

사찰 뒤 암벽에는 태인 출신의 몽련당 김진민이 쓴 '석란정' 이라는 바위새김글이 지금도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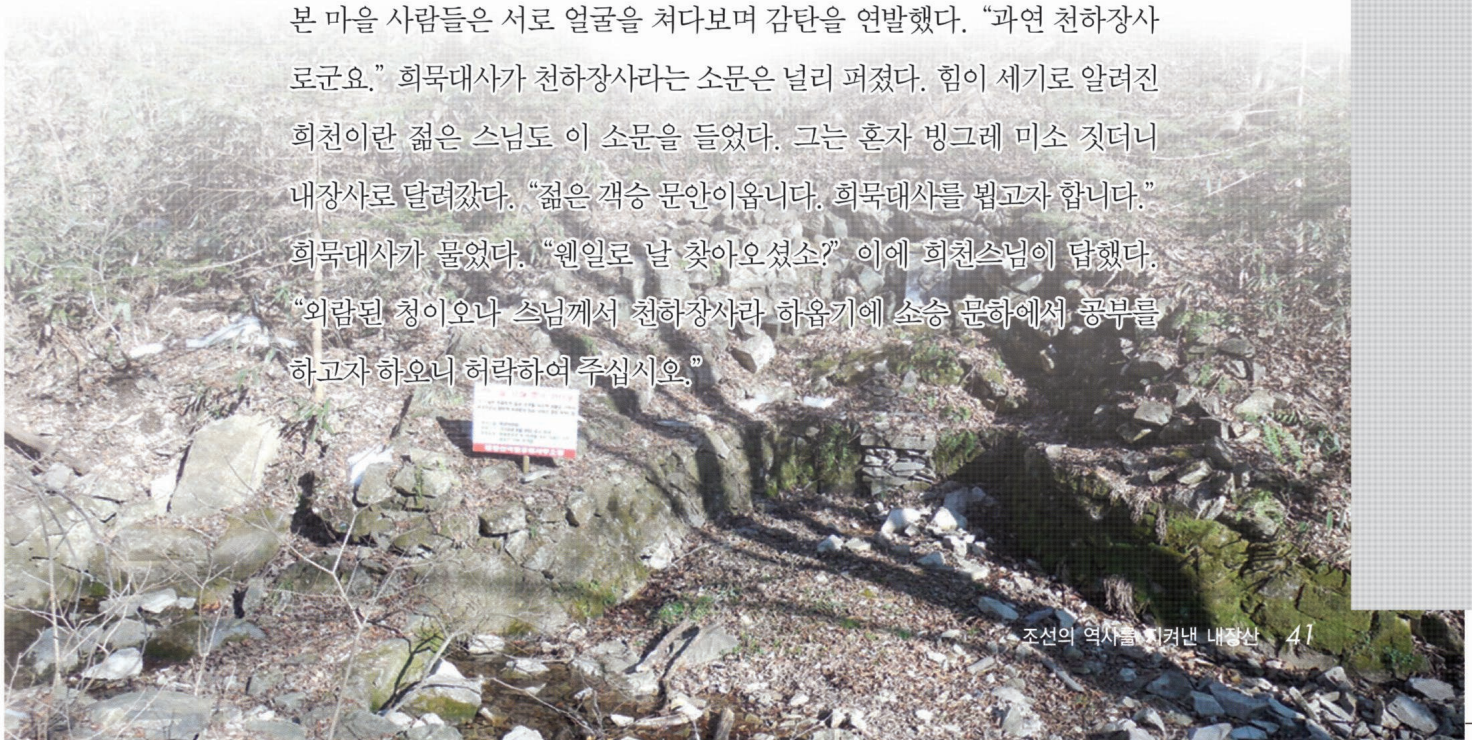


석란정지 바위새김글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4 PM 페이지41 Mac1 CTP-2400-CMYK

신비한 장군샘

조선 명종 때의 일이다.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내장산 내장사(당시 영은사)에 기운이 장사인 희묵대사가 주석하고 있었다. 대사의 힘은 산에 나무하러 가서 달려드는 호랑이를 손으로 꼼짝 못하게 할 정도로 대단했다. 어느 날 스님이 아랫마을로 시주하러 갔을 때였다. 큰 황소 두 마리가 뿔을 맞대고 싸우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몽둥이를 들고 떼어 놓으려 했으나 오히려 황소의 싸움은 격렬해지기만 했다. 이때 이를 보고 있던 희묵대사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황소 옆으로 다가갔다. "스님 저리 비키십시오. 가까이 가면 다치십니다." 놀란 마을 사람들이 크게 소리치며 걱정했으나 스님은 태연스럽게 두 소의 뿔을 양쪽 손에 나누어 잡고는 간단히 떼어 놓았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감탄을 연발했다. "과연 천하장사로군요." 희묵대사가 천하장사라는 소문은 널리 퍼졌다. 힘이 세기로 알려진 희천이란 젊은 스님도 이 소문을 들었다. 그는 혼자 빙그레 미소 짓더니 내장사로 달려갔다. "젊은 객승 문안이옵니다. 희묵대사를 뵙고자 합니다." 희묵대사가 물었다. "웬일로 날 찾아오셨소?" 이에 희천스님이 답했다. "외람된 청이오나 스님께서 천하장사라 하옵기에 소승 문하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4 PM 페이지42 Mac1 CTP-2400-CMYK

그러나 희천스님의 속셈은 말과는 달랐다. 문하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구실일 뿐 희묵대사를 눌러 민망하게 한 후 자신이 제일 힘이 세다는 것을 천하에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희천스님은 자신의 생각이 헛된 망상임을 곧 알게 됐다. 도저히 자신의 실력으로는 희묵대사를 당해낼 수 없었던 것이다. 희천스님은 진심으로 희묵대사의 제자가 되어 은사스님이 어떻게 힘을 키우는지 배우기로 했다. 하지만 희묵대사는 힘을 키우기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는 일도 없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희천스님은 스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기 시작했다. 희묵대사는 매일 새벽 예불을 끝내면 절 뒷산중턱 바위틈에서 나오는 샘물을 감로수 마시듯 마시고는 아주 기분 좋게 하산하는 것이었다. 희천스님은 생각하였다. "혹시 저 물에 무슨..." 이후 희묵대사가 물 마시는 광경을 몇 차례 훔쳐본 희천스님은 샘물을 맛보았다. 물맛이 하도 좋아 희천스님은 아무래도 샘물에 무슨 조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희천스님도 매일 샘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렇게 물 마시기 1주일째 되던 날, 희천스님은 자신의 힘이 세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곤 너무 좋아 다음날부터는 물을 더 많이 마셨다. 그러던 어느 날, 희묵대사는 아무래도 희천의 거동이 이상하여 살펴보니 혼자만 마시던 샘물을 희천이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를 본 희묵대사는 소리쳤다. "네 이놈! 어찌 스승의 허락도 없이 네 맘대로 샘물을 마시느냐?" 희묵대사는 제자를 시험하려는 듯 산봉우리에 올라 큰 돌을 아래로 던졌다. 희천스님도 힘이 세어 스승이 던지는 돌을 받아 차곡차곡 쌓아 놓았다. 지금도 내장사에 가면 그때 희천스님이 쌓았다는 돌무더기가 남아있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4 PM 페이지43 Mac1 CTP-2400-CMYK

이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희묵대사와 희천스님은 승병을 일으켜 왜병과 싸웠다. 그 후 사람들은 그 봉우리를 장군봉이라 불렀으며 샘물은 장군이 마셨다 하여 장군샘의 장군수라고 하였다. 산정에는 희묵대사의 지휘대였다는 장군대(용바위)가 있고 산 북쪽 줄기 밑 신선대 부근에는 성터의 흔적이 있어 스님들의 구국사상을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내장산 동구에서 약 1㎞거리에 백양사로 넘어가는 지름길 고개를 유군이재(류군사 · 유군치)라고 하는데 이는 군대가 머물렀던 곳이란 뜻이다. 희묵대사와 희천스님은 승병을 이끌고 이 고개에 머물면서 왜구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았다고 한다. 희묵대사와 희천스님이 이곳을 지키고 있으니 왜구들은 다른 길로 돌아 전주로 향했다. 전주에는 태조 이성계의 사당인 경기전이 있었으므로 위험을 느낀 두 스님은 사람을 보내 태조의 어진과 전적을 옮겨올 수 있게 힘을 보탰다. 이후 밤길을 타서 모셔온 어진과 실록을 두 스님은 신선봉 아래의 천연동굴 용굴암에 모셨다. 위기를 면한 이 전적과 유물들은 1년 1개월간 용굴암에 보전되었다가 조정의 명으로 함경도 묘향산 보현사 별전에 옮겨졌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4 PM 페이지44 Mac1 CTP-2400-CMYK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4 PM 페이지45 Mac1 CTP-2400-CMYK

천년고찰 백양사를 품은 백암산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4 PM 페이지46 Mac1 CTP-2400-CMYK

천년고찰 백양사를 품은 백암산

백암산은 흰색 바위로 된 산이란 의미의 명칭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미 고려시대에 삼봉 정도전은 백암산을 '암석이 모두 백색'으로 된 산이라고 『백암산정토사교루기(白巖山淨土寺橋樓記)』에 남겼다.

그렇다면 흰색 바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백암산의 많은 봉우리 중 백학봉의 학바위는 마치 한 마리의 학이 날개를 펴고 앉은 것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학바위의 모습을 바라보며 백암산의 이름을 정한 것이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4 PM 페이지47 Mac1 CTP-2400-CMYK

백암산은 상왕봉(741m), 사자봉(722m), 백학봉(651m), 도집봉, 가인봉, 옥녀봉 등 많은 봉우리들이 백양계곡을 감싸 안은 듯 배치되어 있는데, 특히 상왕봉과 백학봉은 전라남도 장성군과 전라북도 정읍시 · 순창군의 경계에 위치하고 신경준의 『산경표』에 의하면 1대간 9정맥 중 호남정맥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4 PM 페이지48 Mac1 CTP-2400-CMYK

국가의 안녕을 기원한 산

백암산 정토사는 삼남의 소금강이라, 혹시 하늘이 가물고 땅이 말라 만민이 모두 근심할 때 국가가 크게 놀라서 준수한 신하를 보내 친히 이 산에서 기도를 하게 하면 곧 하늘이 비를 내리게 하여 만민이 은혜를 입게 하였다. 이는 이른바 영이한 땅인지라 감히 소홀히 하지 못할 곳이다.(법시「백암산정토사사적(白巖山 淨土寺 事跡)」)

백암산 학바위는 거대한 모습과 사계절 시시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에게 신령함을 주는 산이다. 그래서일까? 그다지 높지 않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백암산은 호남지역의 명산이자 대표적인 산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국가의 전란, 가뭄, 질병 등 위기가 있을 때마다 나라님이 관리를 파견하여 종교와 신분을 떠나 국기제(國祈祭)를 지냈던 곳이었다.

그 전통을 이어 오랫동안 단절된 국기제는 1982년 장성군민의 날 민속 경연대회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매년 거행되고 있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4 PM 페이지49 Mac1 CTP-2400-CMYK

옛날에는 국기제를 어디서 지냈을까?

입암산 국기제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제례를 지냈다는 기록이 여러 곳 보인다. 그렇다면 국기제를 지냈던 장소는 어디였을까? 사실 기록에는 국기제를 지낸 장소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다. 일설에는 사자봉 정상에서 제를 지냈다고도 하는데 지금도 사자봉에 오르면 마치 정상 아래 건물이 있었던 것처럼 발을 구르면 쿵쿵 울림 소리가 나지만,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재 매년 국기제를 지내는 국기단은 백학봉 아래에 근래에 새롭게 조성한 장소이다. 이 곳은 주변에 국제기(國祭基)라고 쓰여진 각석이 발견되어 국기제 장소로 여겨져 국기단을 조성한 것인데, 이 국제기 각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국계기(國癸基)로 쓰여 있어 정말 국기제를 지내는 장소를 나타낸 것인지는 의문이다.



국제기 각자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4 PM 페이지50 Mac1 CTP-2400-CMYK

호남의 4대 명당 백암산

매월당 김시습(金時習), 토정 이지함(李之菡)과 더불어 조선의 3대 기인으로 꼽히는 북창 정렴(鄭磏 : 1506 ~ 1549)은 "앞으로 개벽(開闢)이 오는데 도통군자(道通君子)가 조선 땅에서 나온다."며 우리나라 풍수지리상 명당을 말하였는데, 순창군 구림면 회문산(回文山)의 오선위기혈(五仙圍碁穴), 전북 정읍시 태인면 군신봉조혈(君臣奉朝穴), 전남 무안군 몽탄면과 청계면의 호승예불혈(胡僧禮佛穴), 마지막으로 전남 장성 북하면 백암산의 선녀직금혈(仙女織錦穴)을 들었다.

백암산의 선녀직금혈은 선녀가 비단을 짜는 형국의 명당으로, 백양계곡을 따라 겹겹이 늘어선 봉우리들을 보면 식견이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좋은 터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곳이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4 PM 페이지51 Mac1 CTP-2400-CMYK

특히 백학봉 아래에는 인촌 김성수(金性洙 : 1891~1955)의 첫 번째 부인인 고씨의 묘가 있는데 양지바른 백암산 자락에 넓게 트인 곳에 자리 잡은 백암산의 대표적인 명당이다.

이외에도 백암산이 감싸 안은 대표적인 암자인 운문암은 이름난 고승들을 배출한 유명한 선종(禪房)인데 백암산의 대표 봉우리인 사자봉과 상왕봉이 마치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부처를 협시하는 것처럼 운문암을 호위하고 있어 부처의 도를 깨우치는 곳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김성수 부인 고씨 묘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4 PM 페이지52 Mac1 CTP-2400-CMYK

백양사를 품은 백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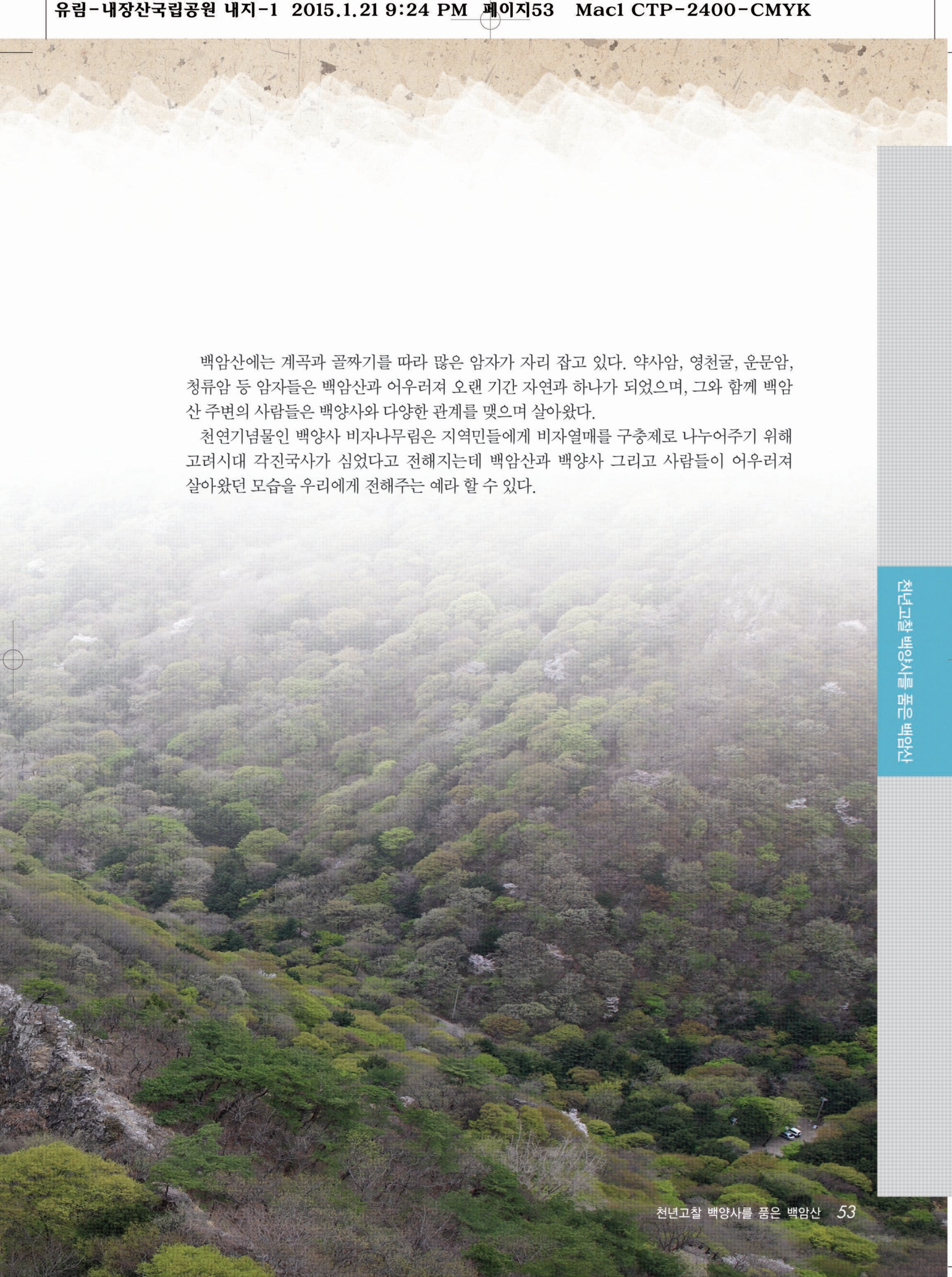
백암산은 천년고찰 백양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산이다. 선종의 발전과 산악신앙 등의 영향으로 산지에 사찰들이 생기면서 산명이 사찰의 명칭이 되거나 혹은 사찰의 명칭이 산명이 되어왔는데, 백암산도 그와 같아서 백양사의 원래 명칭은 백암산의 산명에서 딴 백암사였다. 그리고 백암산의 봉우리들은 사자봉(사자), 상왕봉(코끼리)처럼 불교의 상징동물을 의미한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4 PM 페이지53 Mac1 CTP-2400-CMYK

백암산에는 계곡과 골짜기를 따라 많은 암자가 자리 잡고 있다. 약사암, 영천굴, 운문암, 청류암 등 암자들은 백암산과 어우러져 오랜 기간 자연과 하나가 되었으며, 그와 함께 백암산 주변의 사람들은 백양사와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다.

천연기념물인 백양사 비자나무림은 지역민들에게 비자열매를 구충제로 나누어주기 위해 고려시대 각진국사가 심었다고 전해지는데 백암산과 백양사 그리고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왔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백학봉의 다양한 맛

백암산 황매화야 보는 이 없어
저 혼자 피고진들 어떠하리만
학 바위 기묘한 경(景) 보지 않고서
조화의 솜씰랑은 아는 체 마라
(노산 이은상「백암산」)

노산 이은상(李殷相 : 1903 ~ 1982)은 백암산과 학바위의 아름다움을 시조로 표현하였고, 육당 최남선(1890 ~ 1957)은 백학봉을 바라보며 "흰맛, 날카로운 맛, 맑은 맛, 신령스런 맛이 있다"고 극찬하였다. 노산과 육당의 시문은 모두 백학봉 학바위의 경치가 하나의 수식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절경임을 말해주고 있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4 PM 페이지55 Mac1 CTP-2400-CMYK

이처럼 옛날부터 많은 문인들의 사랑을 받은 백학봉은 백양사와 더불어 대한 8경의 하나로 널리 알려지기도 했으며, 하얀빛을 띠는 백학봉의 절경과 생물학적 가치, 그리고 천년고찰 백양사 문화적 특징을 인정받아 2008년 국가문화재인 명승 제38호로 지정되었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4 PM 페이지56 Mac1 CTP-2400-CMYK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4 PM 페이지57 Macl CTP-2400-CMYK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5 PM 페이지58 Mac1 CTP-2400-CMYK

흰 양의 전설이 깃든 백양사

백암산의 대표적인 전통사찰인 백양사는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가람으로 우리나라 8대 총림 중 하나인 고불총림이다.

백양사의 창건연대는 기록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옛날 신라의 이승(異僧)이 창건하였는데 423년과 433년 사이에 사찰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기록에서부터 늦게는 633년까지 다양하다. 또 백양사의 명칭도 처음에는 백암사(白巖寺)였다가 정토사(淨土寺)로 변경되었고 이후 백양사로 불리게 되는 등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백양사의 창건 연대와 명칭에 대한 것은 다음 표와 같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5 PM 페이지59 Mac1 CTP-2400-CMYK

사찰의 명칭	시 기	출전 및 내용
白巖寺	423년 이전(창건)	「백암산정토사교루기」(정도전)- 신라 이승(異僧)이 창건
	632년 창건	「조선사찰선교양종삼십본사병기속말사」- 신라승 여환 창건
	633년 창건	「극락전불양계서」
淨土寺(淨土禪院)	423년 이후	「백암산정토사교루기」(정도전)-
		宋 景平연간(423~424)명칭변경
	1034년 이후	「조선사찰선교양종삼십본사병기속말사」
		중연선사 명칭변경
	1341	「백암산정토사사적」(법시)- 정토사로 표시
	1377	「백암산정토사교루기」(정도전)- 정토사로 표시
白巖寺, 淨土寺혼용	1447년	『조선왕조실록』 세종29년-백암사로 표시
	15세기	「쌍계루설」(서거정)-백암사로 표시
	16세기 이후	「신증동국여지승람」-정토사로 표시
白羊寺	1651	「금산사소요당대사비명」- 백양사로 표시
	18세기 중엽이후	비변사방안지도, 해동지도 등 기타 지도- 백양사로 표시
		「중수판각기」- 백양사로 표시
古佛叢林 白羊寺	1996년	

백양사의 창건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가장 이른 기록인 423년은 아직 신라에 불교가 전파되지 않은 시기여서 신라의 이승이 백제지역에 와서 절을 창건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다만 백제에 불교가 전파된 것이 침류왕 원년(384)이므로 절의 창건자가 백제 승려라면 가능한 일일 것이다. 또 632년 신라 승 여환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설도 당시의 시대정황(무왕 33년)으로 보아서 신라의 승려이기보다는 백제의 승려가 더욱 타당하다 하겠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5 PM 페이지61 Mac1 CTP-2400-CMYK

백양사가 처음 창건될 때 명칭인 백암사는 백암산이라는 산명에서 유래된 것이었다. 이후 정토사 혹은 정토선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사찰의 성격이 정토신앙을 바탕으로 한 선종사찰로 변경되면서 그 명칭 또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의 기록들은 대부분 정토사로 표기되었으나 조선시대의 기록은 백암사와 정토사가 혼재되어 기록되어 있으며, 백양사란 이름은 이와 관련된 설화의 주인공인 환양선사 다음의 주지인 소요대사의 비명에 백양사라는 명칭이 있어 아마도 이 시기부터 '백양사' 라 불려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창건이후 백양사는 모두 4차례의 중건을 거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려 명종대(1170-1196)	中延禪師(중연선사)가 중창
고려 충정왕 2년 1350년	覺眞國師(각진국사)가 중창
조선 고종 원년 1864년	道巖禪師(도암선사)가 중창
1919년	曼庵禪師(만암선사)가 중창



특히 각진국사의 중창으로 백양사는 대가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는 각진국사의 속가인 고성 이씨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또 각진국사의 뒤를 이은 청수(淸叟) 또한 고성 이씨로 고려 말 백양사는 고성 이씨의 원찰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청수 때 보수한 쌍계루의 기를 이색이 쓴 것과 이색의 스승이 청수의 맏형인 행촌 이암이라는 사실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니다.

현재의 백양사의 모습은 만암선사에 의해 만들어졌다. 일제강점기 본말사제로 변경된 후 1917년 제2대 주지가 된 만암선사는 현재 남아 있는 대웅전과 사천왕문 등을 건립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하였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5 PM 페이지63 Mac1 CTP-2400-CMYK

백양사는 운문암, 약사암, 물외암, 영천암, 청류암, 천진암, 금강암, 서향암 등 11개의 암자를 거느리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본말사제가 운영되었을 때에는 인근의 선운사, 내장사 등을 말사로 거느린 30본산 중에 하나였다. 현재의 고불총림이 된 것은 1996년의 일이다. 원래는 해방 후인 1947년에 이미 우리나라 최초의 叢林으로 고불총림을 결성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전쟁의 전화로 무산되었고 1996년 제120회 조계종 임시 중앙종회에서 고불총림을 승인하게 됨으로써 현재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다. 총림의 이름인 '古佛'은 옛부처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외에도 1947년 최초로 총림을 결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호남고불회의 강령 및 고불총림법중 등의 자료에서 보면 '朝鮮古土의 回復과 동시의 佛教의 回復'의 '古'와 '佛'을 합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천년고찰 백양사를 품은 백암산 이야기

백암사에서 백양사로 이름이 바뀐 사연

백양사의 원래 사찰명은 백암사였다가 고려시대 정토사로, 다시 조선시대 백양사로 변경되었다. 조선시대 백양사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은 백양과 관련 된 설화 때문이다.

조선시대 백암사에 한 스님이 설법을 하였는데 매일 산에서 흰 양이 내려와 듣고 가곤 하였다. 사람들은 이를 이상하게 여겼는데, 하루는 스님의 꿈에 흰 양이 나타나, "스님의 설법을 듣고 다시 사람으로 환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곤 절을 하고 사라졌다고 한다. 다음날 스님이 흰양이 설법을 듣고 있었던 자리에 가보니, 흰 양의 죽어있었다. 그 이후로 사찰의 이름을 백양사로 바꿔 부르고 '양을 부르는 스님'이라고 하여 스님을 환양(喚羊)선사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5 PM 페이지64 Mac1 CTP-2400-CMYK

백양사 쌍계루(白羊寺 雙溪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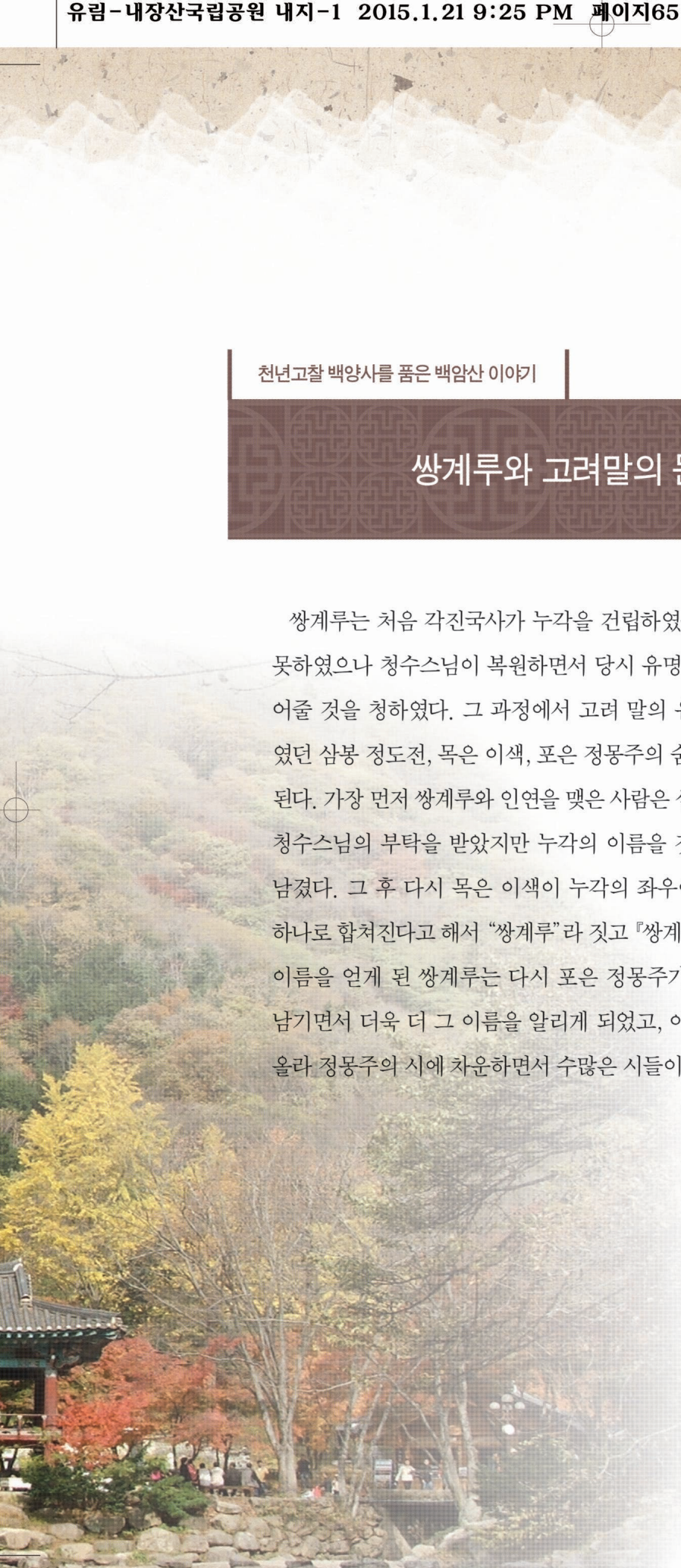
백양사 쌍계루는 전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을 갖춘 2층 누각으로 대략 1350년에 각진국사(覺眞國師 : 1215-1286)에 의해 처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370년 대홍수로 누각이 물에 휩쓸려 내려가자 1377년에 각진국사의 뒤를 이은 청수에 의해서 다시 복원되었다. 이때까지 루의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이 '정토사교루기(淨土寺橋樓記)' 를 쓰고 다시 이색(李穡 : 1328 ~ 1396)이 "쌍계루기(雙溪樓記)"를 지어 지금까지 이름이 전해지고 있다. 쌍계라는 이름의 유래는 루의 좌우로 물이 흘러들어와 하나로 합쳐 흐르는 것을 보고 이색이 쌍계루라 명명하였다 한다. 이후 고려의 충신인 정몽주가 시를 지었고 이를 이어받은 많은 학자와 묵객들이 쌍계루의 경치를 찬양하며 시서를 남겼다. 현재의 쌍계루는 6.25때 소실되었다가 1985년 다시 복원한 것이다. 쌍계루에 오르면 백양계곡이 한눈에 보이며 정도전, 정몽주, 이색의 시서가 현판으로 걸려 있어 시심이 자연스레 우러나는 곳이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5 PM 페이지65 Mac1 CTP-2400-CMYK

쌍계루와 고려말의 문인들

쌍계루는 처음 각진국사가 누각을 건립하였을 때는 특별한 명칭을 갖지 못하였으나 청수스님이 복원하면서 당시 유명한 문사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줄 것을 청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려 말의 유학자이자 문인이며 정치가였던 삼봉 정도전,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의 숨결이 쌍계루와 인연을 맺게 된다. 가장 먼저 쌍계루와 인연을 맺은 사람은 삼봉 정도전이었다. 정도전은 청수스님의 부탁을 받았지만 누각의 이름을 짓지 않고 『정토사교루기』를 남겼다. 그 후 다시 목은 이색이 누각의 좌우에서 두 갈래의 물이 흘러와 하나로 합쳐진다고 해서 "쌍계루"라 짓고 『쌍계루기』를 남겼다. 이색에 의해 이름을 얻게 된 쌍계루는 다시 포은 정몽주가 『쌍계루』라는 칠언율시를 남기면서 더욱 더 그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이후 많은 문인들이 쌍계루에 올라 정몽주의 시에 차운하면서 수많은 시들이 남게 되었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5 PM 페이지66 Macl CTP-2400-CMYK

쌍계루(雙溪樓)

포은 정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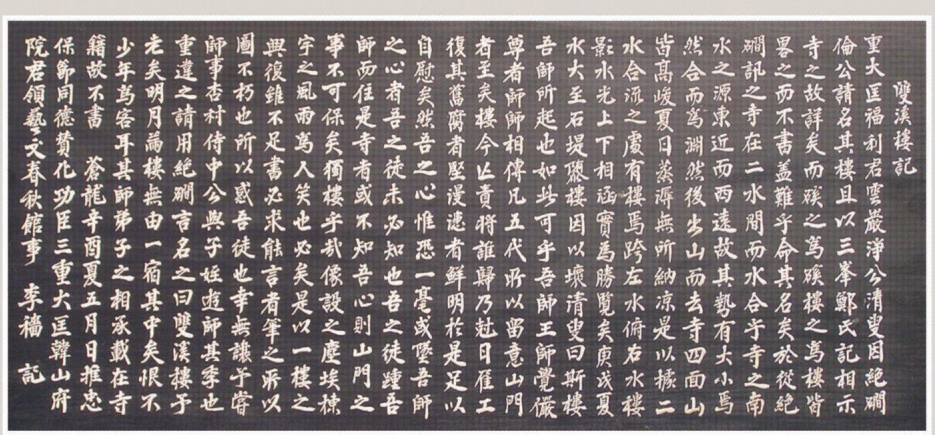
求詩今見白巖僧　把筆沈吟愧不能
淸叟起樓名始重　牧翁作記價還增
烟光縹緲暮山紫　月影徘徊秋水澄
久向人間煩熱惱　拂衣何日共君登

지금 시를 써 달라 청하는 백암승(白岩僧)을 만나니,
붓을 잡고 침음(沈吟)하면서 재주 없음 부끄럽구나.
청수가 누각 세워 이름이 이제 무겁고,
목옹(牧翁 이색)이 기문을 지어 값 더욱 더하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이 붉고,
달빛이 배회하니 가을 물이 맑구나.
오랫동안 인간에서 시달렸는데,
어느 날 옷을 떨치고 자네와 함께 올라 볼까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5 PM 페이지67 Mac1 CTP-2400-CMYK

고려말 신진사대부이자 유학자였던 이색, 정도전, 정몽주는 한때는 서로 동문사제 간이었고, 고려의 국운을 걸고 정치적 대립을 하였던 사이이기도 했다. 그러한 이들이 쌍계루라는 건축물에 함께 이름을 짓고 시를 남겼다는 것은 우리에게 독특한 의미를 가지게 한다. 현재는 중건하여 새로워진 기둥과 기와로 고풍스러운 멋은 사라진 쌍계루지만 지금도 누각에 올라 백암산의 청명한 바람을 맞으며 포은 선생의 한시를 읊조리면 옛사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雙溪樓記
重大匡福利君雲巖淨公清要固絶嗣
倫公請名其樓且以三峯鄭氏記相示
寺之故詳矣而殊之爲殊樓之爲樓皆
畧之而不書蓋難乎命其名矣於從絶
嗣記之寺在二水間而水合乎寺之南
水之源東近而西遠故其勢有大小焉
然合而爲渊然後步山而去寺四面山
皆萬峻夏日炎蒸無所納凉是以擾二
水合流之處有樓焉跨右水俯右水樓
影水光上下相涵實爲勝覽矣庚戌夏
水大至石堤隳樓因以壞清叟曰斯樓
吾師所起也如坫可乎吾師王師覺儼
尊者師師相傳凡五代所以留意山門
者至矣樓今亡責將誰歸乃赴日僅工
復其舊腐者堅漫漶者鮮明於是足以
自慰矣然吾之心惟恐一憂或墜吾師
之心者吾之徒未必知也吾之徒踵吾
師而住是寺者或不知吾心則山門之
事不可保矣獨樓乎哉像設之虔埃栱
宇之風雨爲人笑也必矣是以一樓之
興復雖不足書忍求能言者筆之所以
圖不朽也所以惑吾徒也幸無讓乎宿
師事杏村侍中公與予姪遊師其季也
重違之請用紀刪言名之曰雙溪樓于
老矣明月滿樓無由一宿其中矣恨不
少年爲客耳其師弟子之相承載在寺
籍故不書 蒼龍辛酉夏五月日推忠
保節同德贊化功臣三重大匡韓山府
院君領藝文春秋館事 李穡 記

이색의 쌍계루기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5 PM 페이지68 Mac1 CTP-2400-CMYK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長城 白羊寺 逍遙大師塔)

백양사 26대 주지였던 소요대사(逍遙大師 : 1562~1649)의 승탑으로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되었다가, 2002년 9월 25일 보물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재질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크기는 높이 160cm 둘레 280cm 직경 100cm인 조선시대 대표적인 석종형 부도로 지대석과 기단부는 8각으로 되어 있다.

탑신부와 상륜부를 하나의 몸체(석재)로 구성하여 상륜부 정상에 여의주형 보주를 마련하고 사방에 용두를 배치하여 여의주를 다투는 형상으로 구성하였고 용두 사이에는 소용돌이치는 구름무늬를 볼륨 있게 장식하였다. 정상의 여의주형 보주 상단에 원형의 작은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또 하나의 작은 부재를 결합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5 PM 페이지69 Mac1 CTP-2400-CMYK

탑신부 중앙에는 네모모양의 구획을 두어 "소요당(逍遙堂)" 이란 당호를 음각으로 종서하였다.

위패형 장식의 좌우 유곽아래에는 구름에 싸인 두 마리의 용을 서로 마주보게 배치하였으며 후면에도 한 마리의 용을 배치하여 모두 3마리의 용이 탑신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다.

두 줄의 굵은 돌출선으로 구획된 하대에는 전면에 거북이가 기어오르는 모습을 양각하고 그 좌우로 돌아가면서 귀면, 게, 개구리, 거북, 파도문, 운문 등을 장식하였다.

풍화로 인하여 탑신 좌우측의 조각이 상당부분 떨어져 나가 있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5 PM 페이지70 Mac1 CTP-2400-CMYK

소요대사의 행적을 따라 조성된 승탑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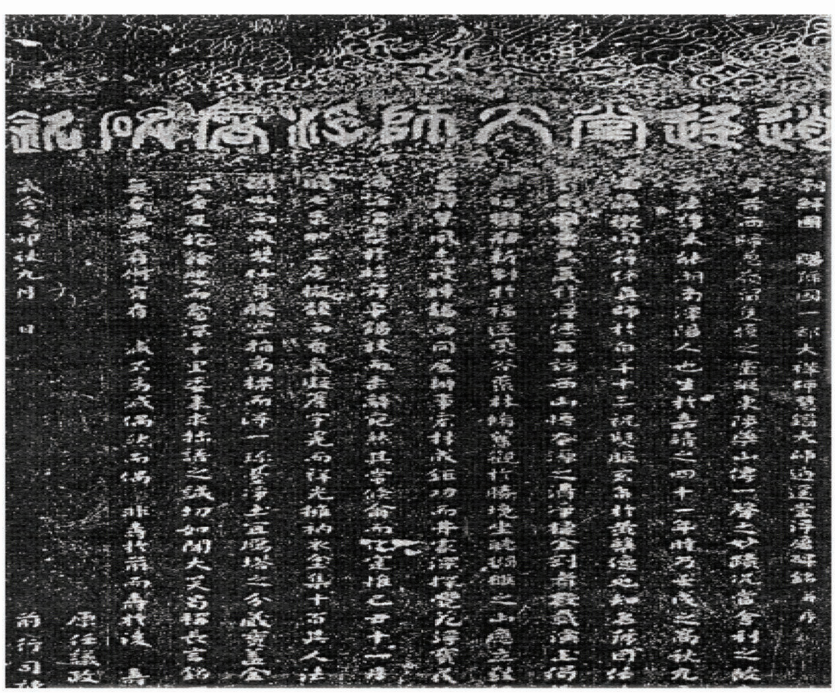
소요대사탑의 주인공은 소요당 태능(太能) 스님이다. 스님은 조선 명종 17년(1562) 담양에서 태어났으며, 속성은 오씨로 13세에 백양사에서 출가하신 후 인조 27년(1649)에 입적하셨다. 서산대사 휴정스님의 제자였던 스님은 병자호란 때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 남한산성을 보수하는 등 실천하는 승려였으며 열반에 드신 후 효종대왕이 혜감선사라는 시호를 내리고 왕명으로 금산사에 스님의 비를 세우도록 하는 등 조선시대 호남을 대표하는 승려였다. 또 스님의 다비식 날에는 영골(靈骨)이 불 밖에 튀어나오고 사리(舍利) 두개는 공중에 솟아오르는 신이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기록에 의하면 태능 스님의 사리는 연곡사, 금산사(金山寺), 보개산(寶蓋山) 세 곳에 나누어 모셨다고 전하는데, 현재 남아있는 스님의 승탑은 백양사, 용추사, 연곡사에 전하고 있어 기록과는 다른 점이 있다. 그중 연곡사와 용추사의 승탑은 팔각원당형으로 조성되어 있고 백양사의 소요대사탑만 석종형으로 조성되었다. 태능스님의 행적을 따라 출가한 백양사, 중창하였던 연곡사, 입적하셨던 곳으로 추정되는 용추사의 승탑을 돌아보는 것도 하나의 흥미 있는 답사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5 PM 페이지71 Mac1 CTP-2400-CMYK



연곡사 소요대사탑



금산사 소요대사탑 탁본

백양사 극락보전(白羊寺 極樂寶殿)

백양사 대부분의 건물들이 20세기 초 만암선사에 의해 지어진 것들이어서 백양사의 역사와 함께한 대표적인 전각은 극락보전이라 할 수 있지만, 그 규모나 가람의 배치 때문에 대웅전과 비교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고려 시대 백양사의 명칭이 정토사였던 것으로 보아 예전에는 극락보전이 백양사의 주 전각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 다른 사찰의 극락전이 규모가 크고 화려하게 조성된 것에 비해 백양사 극락보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맞배지붕 건물이지만 그 규모는 그리 크지 않고 소박하다. 낮은 석조 기단 위에 배흘림으로 처리한 기둥, 주변 건물들과 어우러진 모습은 마치 이곳 아미타불의 거쳐 극락정토에 누구나 발원(發願)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5 PM 페이지73 Mac1 CTP-2400-CMYK

극락보전 정면의 편액은 동국진체로 보이지만 누구에 의해 쓰였는지는 전하지 않는다. 편액 아래의 창살은 소박한 격자무늬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 용머리가 해학적으로 그려져 있어 건물과 어울리게 담담하고 소박하다.

극락보전 내부에 들어서면 2m가 넘는 장성 백양사 극락보전 목조 아마타여래좌상(전라남도유형문화재 제289호)을 만날 수 있다. 17세기 불상으로 추정되는 이 아미타여래좌상은 인자한 모습으로 건물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다. 극락보전 내부의 장식도 화려하지 않은데 아미타불을 모신 불단은 수수하며 천장도 화려한 닫집을 만들지 않은 우물천장으로 장식하여 전체적으로 담백한 모습을 보여준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5 PM 페이지74 Mac1 CTP-2400-CMYK

백양사로 다시 돌아온 아미타회상도

백양사 극락보전에는 아미타회상도가 봉안되어 있었는데 조선 후기인 1775년에 제작된 것으로 후불탱화로는 보기 드물게 큰 작품으로 평가 된다.

아미타회상도에는 아미타여래와 팔대보살, 여섯 나한과 사천왕, 그리고 건달바와 긴나라가 묘사되어 있으며 18세기 후반의 불화에 나타나는 색감과 구도를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 시기 전라 · 경상지역에서 활동한 화승 색민(嗇旻)과 여섯 명의 화승들에 의해 그려졌다.

이 아마타회상도는 원래 오랫동안 백양사에서 보관되었다가 1994년 불행히도 도난당했는데, 그 후 행방이 오리무중 이었다가 다시 세상에 나타난 것이 10년이 지난 2004년 이었다. 그것도 장성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의 한국불교미술박물관의 전시물로 말이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5 PM 페이지75 Mac1 CTP-2400-CMYK



2004년 아미타회상도가 나타나면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것을 주장한 백양사와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입하였다는 한국불교미술박물관 간의 소유권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었고 도난문화재가 발견되었을 때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다행히 극적인 이해와 타협으로 한국불교미술박물관에서 백양사에 기증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이 양도되어 일단락 되었다.

현재에도 아미타회상도는 백양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문화재의 가치는 그 문화재의 원래의 위치에 있어야만 그 빛을 발하는 법인데, 몇몇 사람들의 욕심으로 우리는 이 문화재를 박물관에서야 볼 수 있게 되었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5 PM 페이지76 Mac1 CTP-2400-CMY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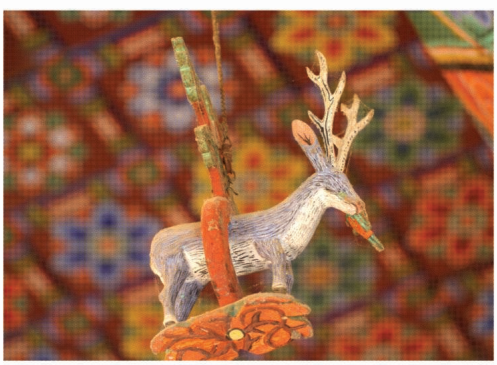
백양사 대웅전(白羊寺 大雄殿)

백양사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규모를 가진 다포양식의 겹처마 팔작지붕건물이다. 대웅전은 원래 '큰 영웅의 집' 이라는 뜻으로 불교의 큰 영웅 즉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모신 건물이다. 대웅전의 경우 주불인 석가모니불과 좌우에 협시보살인 문수와 보현보살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좌측에 문수보살 우측에 관음보살을 둔 이형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5 PM 페이지77 Mac1 CTP-2400-CMYK

내부는 우물바닥과 우물천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천장 닫집 주위에는 조그만 청룡, 황룡, 비천, 청학과 백학을 탄 선인들이 날고 사슴과 봉황 등이 모빌처럼 앙증맞게 매달려 보는 이들이 흥미를 느끼게 만든다. 백양사 대웅전은 1919년 만암선사에 의해 지어진 건물로 전라남도 지방유형문화재 43호로 지정되어 있다. 백양사 대웅전의 편액은 원교 이광사(李匡師 : 1705~1777)의 글씨로 되어있는데 대웅전의 창건연대와 이광사의 활동연대를 비교하면 그 시기가 맞지 않고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의 이광사의 글씨와 똑같아 대흥사 편액의 글자를 집자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5 PM 페이지78 Mac1 CTP-2400-CMYK

대웅전을 지키는 나한들

백양사 대웅전에는 다른 사찰에서 찾기 힘든 십육나한상이 봉안되어 있다. 십육나한은 현세에서 정법(正法)을 지키는 16명의 아라한(阿羅漢:수행자의 최고 이상 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백양사 대웅전의 십육나한상은 1925년 공시찬(孔施贊)이 조성한 것이다. 각각의 나한은 하나의 나무에 조각하여 의복과 표정을 모두 다르게 처리하였다. 얼굴의 주름과 목 힘줄, 웃는 표정과 빠진 이까지 세세하게 묘사하였으며, 옷자락에 비단 무늬까지 섬세하게 그려 넣은 작품으로 표정이 살아있고 해학적인 나한상의 모습은 엄숙하거나 어려운 종교가 아닌 대중적이고 생활에 녹아든 불교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온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5 PM 페이지79 Mac1 CTP-2400-CMYK

만암당부도(曼庵堂 浮屠)

백양사 만암당부도는 전형적인 석종형 부도로서 소요대사탑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작품이다. 8각 지대석 부분이 매몰되어 있는데, 지대석 상면에서 보주까지의 총 높이는 175cm이고 종신(탑신)부분의 최대둘레는 285cm이다.

지대석 위의 기단부 역시 8각인데, 측면의 앞쪽 모서리에는 기어오르는 형태의 거북을 좌우로 배치하였고 후면에도 한 마리의 거북을 두었다. 그리고 각 면에는 간략화 되고 변형된 화문을 장식하여 소요대사탑의 장식문양과는 비교가 된다. 기단부 상면은 볼륨이 풍부한 8엽 복련과 간판을 장식하였고 그 위로 1단의 호형(弧形) 괴임을 마련하여 종형탑신을 받고 있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5 PM 페이지80 Mac1 CTP-2400-CMYK

만암대종사

법명은 종헌(宗憲)이며 법호는 만암(曼庵 : 1876 ~ 1957)이다. 조계종 종정과 백양사 제48세, 제 50세 주지를 역임했으며 고불총림(古佛叢林)의 개조(開祖)라 할 수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3세 대종정 대본사 백양사 제5회 중창주 만암대종사 사리탑비명」등에 그 발자취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

속성은 여산 송씨로 1876년(고종 13년) 전라도 고창에서 태어났다. 11세에 부모를 여의고 백양사로 출가했다. 백양사에서 사미과와 사집과를, 구암사에서 사교과를, 해인사에서 대교과를, 선암사에서 수의과를 수료했다. 운문암, 청류암에서 강의하다가 32세에 해인사 강백(講伯)으로 추대됐다.

1910년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민족혼을 말살하려 하자 청류암에 근대적인 승려교육기관인 '강성의숙' 을 세우고, 쌍계루 옆에 일반인을 위한 보통교육 기관인 '심상학교' 를 세워 민족교육을 해 인재양성에 힘썼다.



1910년 이회광 등 당시 불교 지도자들이 우리 불교종단을 이본의 조동종에 병합 · 예속 시키려 하자 1911년 영호 스님, 한용운 스님 등과 함께 임제종을 세우고 매종행위를 저지했다.

1914년 백양사 주지로 취임한 뒤 민주적 종단 운영을 역설하고, 백양사를 크게 중창했다.(1916~1939) 이 시기의 백양사는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승풍(僧風)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5 PM 페이지81 Mac1 CTP-2400-CMYK

1925년 영호 스님과 '재단법인 조선불교 선교양종 중앙교무원'을 세웠다.

1928년 불교전수학교(1930년 중앙불교전문학교로 개칭, 동국대학교 전신)을 세우고 3년 동안 교장을 역임했다. 해방 후 1946년 광정광중학교(목포에 설립하였으나 1948년 광주로 이전, 1951년 정광고 개교)를 세우고 교장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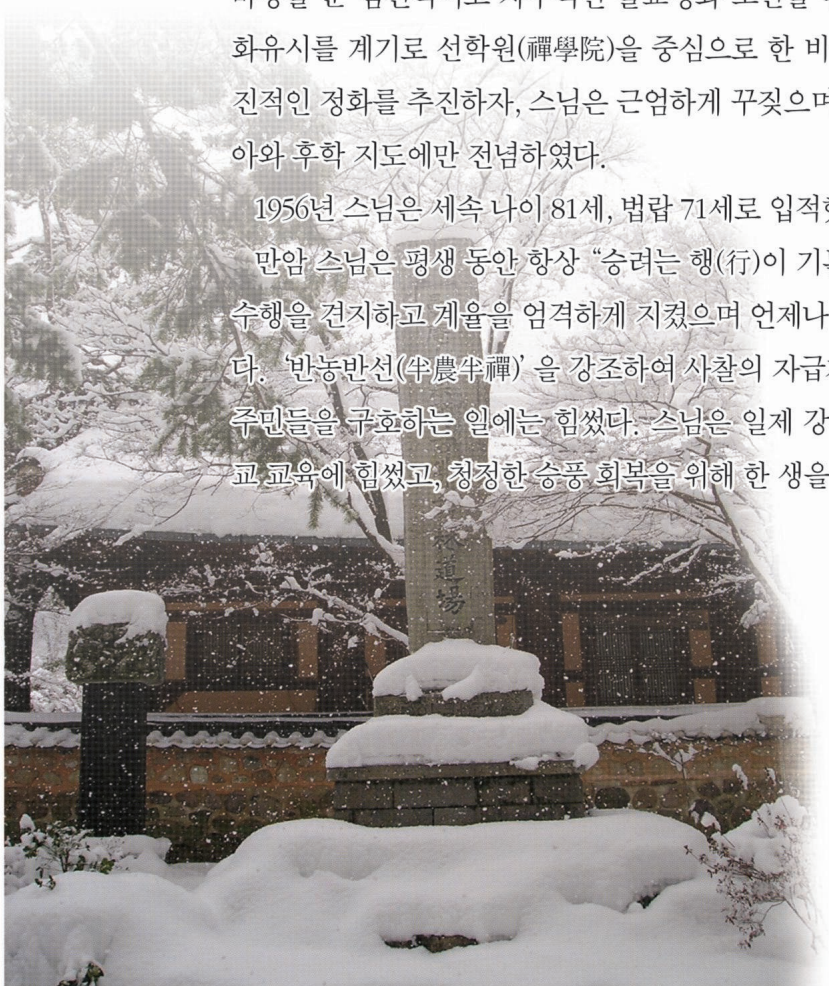
1947년 '식민지불교 청산'과 '민족정기 함양', '승풍 진작'이라는 3대 목표 아래 전라도 20여 사암 및 포교당을 동참시켜 호남고불총림(湖南古佛叢林)을 결성했다.

1950년 조선불교 선교양종 제2대 교정으로 취임한 뒤 종명을 조계종으로 바꾸고 종풍을 쇄신했다.

1952년 조계종 제3세 종정으로 추대되어 5년 동안 역임했다. 승려를 수행승과 교화승으로 구분하여 교단 정화를 추진했으며, 불교의 분열을 경계하고 승가의 화합에 바탕을 둔 점진적이고 자주적인 불교정화 노선을 취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의 정화유시를 계기로 선학원(禪學院)을 중심으로 한 비구측 일각에서 권력에 의지한 급진적인 정화를 추진하자, 스님은 근엄하게 꾸짖으며 종정직을 사임하고 백양사로 돌아와 후학 지도에만 전념하였다.

1956년 스님은 세속 나이 81세, 법랍 71세로 입적했다.

만암 스님은 평생 동안 항상 "승려는 행(行)이 기본이 된다."라고 강조하며 청정한 수행을 견지하고 계율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언제나 운력이나 공양을 대중과 함께 했다. '반농반선(半農半禪)'을 강조하여 사찰의 자급자족을 꾀하는 한편, 어려운 인근 주민들을 구호하는 일에는 힘썼다. 스님은 일제 강점 하에서 민족불교의 수호와 불교 교육에 힘썼고, 청정한 승풍 회복을 위해 한 생을 다 바쳤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5 PM 페이지82 Mac1 CTP-2400-CMYK

장성 백양사 고불매(長城 白羊寺 古佛梅)

백양사 고불매는 백양사 우화루 옆에 서 있는 매화나무를 말하는 것으로 2007년 10월 8일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알려지기로는 1700년 경부터 백양사의 스님들이 매화나무를 심고 가꾸어왔는데 19세기 백양사의 위치를 이전할 때 지금의 자리에 백매와 홍매 한 그루씩을 심었다고 한다.

그 중 백매는 고사되었고 홍매는 지금까지 남아있다.

1947년 백양사가 고불총림을 결성하면서 이 홍매에게 고불매란 이름을 붙여줬다고 전한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5 PM 페이지83 Mac1 CTP-2400-CMYK

총림이란 무엇일까?

총림(叢林)은 빈댜바나(산스크리트어: Vindhyavana)의 의역으로 여러 승려들이 화합하여 함께 배우며 안거(安居)하는 곳을 말한다. 흔히 선원(禪院)·강원(講院)·율원(律院)·염불원(念佛院)·종무소(宗務所) 등 제반 시설을 갖추고 여러 승려가 수행하는 도장을 말하며, 총림의 최고지도자를 방장(方丈)이라 부른다. 조계종에는 해인사·송광사·통도사·수덕사·백양사의 다섯 사찰을 오대 총림이라 하였는데, 2012년 동화사·쌍계사·범어사의 세 사찰을 만장일치로 총림으로 추가 지정하여 팔대 총림이 되었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5 PM 페이지84 Mac1 CTP-2400-CMYK

백양사 진영각칠성전(白羊寺 眞影閣七星殿)

백양사 진영각칠성전은 다른 지역의 진영각 및 칠성전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진영각과 칠성전은 독자적인 건물을 갖고 있으나 백양사의 경우에는 하나의 건물로 이어져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용도의 공간이 한 건물에 만들어진 경우는 부산 범어사의 팔상독성나한전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각각 '전' 이라는 품격의 건물들의 조합되어 있어 백양사의 진영각칠성전처럼 격이 다른 용도의 공간이 한 건물에 만들어진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진영각, 칠성전을 전체적으로 보면 정면4칸 측면3칸의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진영각이 정면3칸, 칠성전이 1칸을 차지하고 있다.

진영각은 사찰의 조사 및 업적이 높은 고승의 진영을 모시는 곳으로 백양사의 진영각에는 개창자인 여환선사를 중심으로 중연선사와 각진국사 및 30여분의 고승의 진영을 모시고 있다.

칠성전은 주로 칠성각(七星閣)이라고 하는데 민간신앙인 칠성(북두칠성)을 모시는 곳으로 주로 사찰의 뒤편에 있으나 백양사는 대웅전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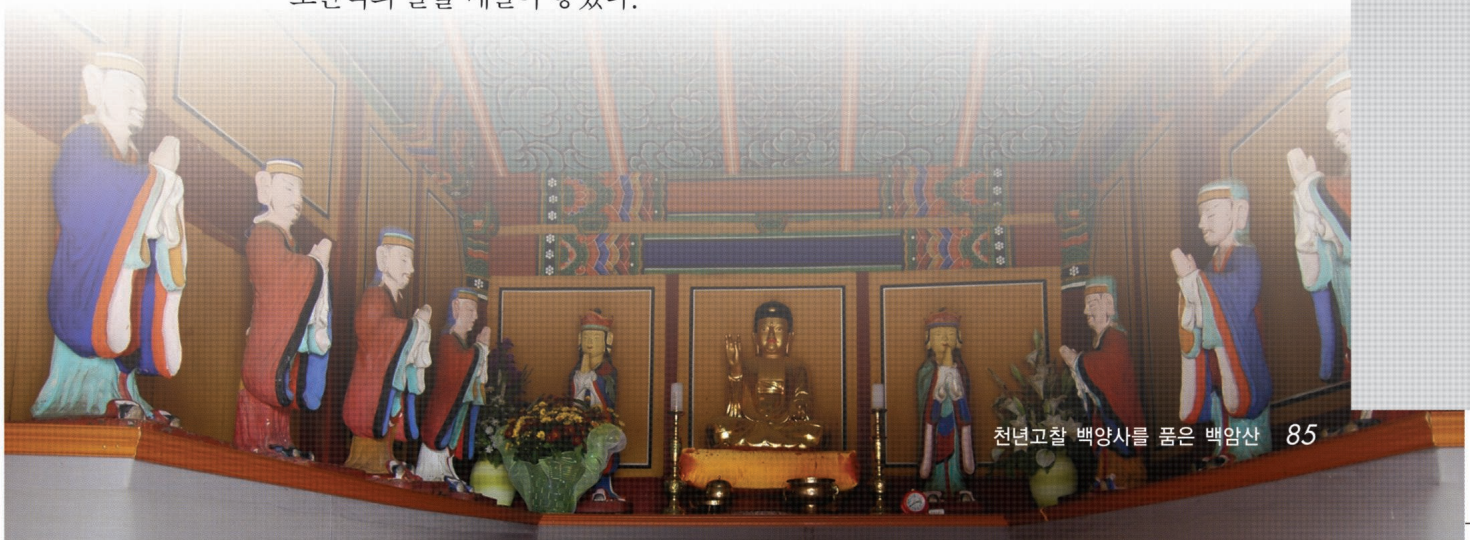
이 건물은 모두 1919년 만암선사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조선시대 말 불교건축의 정형성이 파괴된 모습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5 PM 페이지85 Mac1 CTP-2400-CMYK

수복을 관장하는 신 칠성

백양사 칠성전에는 칠성광여래(熾盛光如來)와 일광보상(日光菩薩), 월광보살(月光菩薩), 칠원성군(七元聖君)이 조각되어 모셔져 있다. 칠성전의 본존은 근래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칠성과 일광, 월광 두 보살은 소조상으로 높이가 대략 80cm 내외인데, 1880년의 작품이다. 일반적으로 칠성전의 칠성은 그림으로 그려지거나 북두칠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비해 백양사 칠성전에는 칠성상이 봉안되어 있다. 이 칠원성군은 원래 고종 17년(1880) 경진년에 왕의 명으로 조성하여 운문암에 봉안하였다. 이후 1948년 10월 여순반란 사건이 일어나자 운문암에서 위험을 느껴 이곳으로 옮겨 봉안하였다고 한다. 칠원성군은 모두 문관의 복장을 한 모습으로 머리 위에 하얀색 별이 달려 있고 검은색 단이 둘러진 빨간색 또는 파란색의 윗옷과 노랑, 파랑색의 내의를 입고 있다.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은 보살의 모습에 왕관형 관을 쓰고 있다. 머리 위에 일광보살은 빨간색의 해를 월광보살은 노란색의 달을 매달아 놓았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5 PM 페이지86 Mac1 CTP-2400-CMYK

백양사 불사리탑(白羊寺 佛舍利塔)

백양사 불사리탑은 일반적인 탑의 형태와 위치와는 다른 독특함을 갖추고 있다. 먼저 백양사 불사리탑은 주 건물인 대웅전 전면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 이 탑은 독특하게도 대웅전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모시는 금강계단의 경우 불전 뒤편에 배치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불전에는 불상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백양사 불사리탑 앞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불을 모시고 있다.

백양사 불사리탑은 그 모양도 특이한데 전형적인 3 · 5 · 7 · 9의 홀수탑이 아닌 8층탑으로 되어있다. 그 이유에 대해 불교의 팔정도(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를 상징하는 의미로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른 사찰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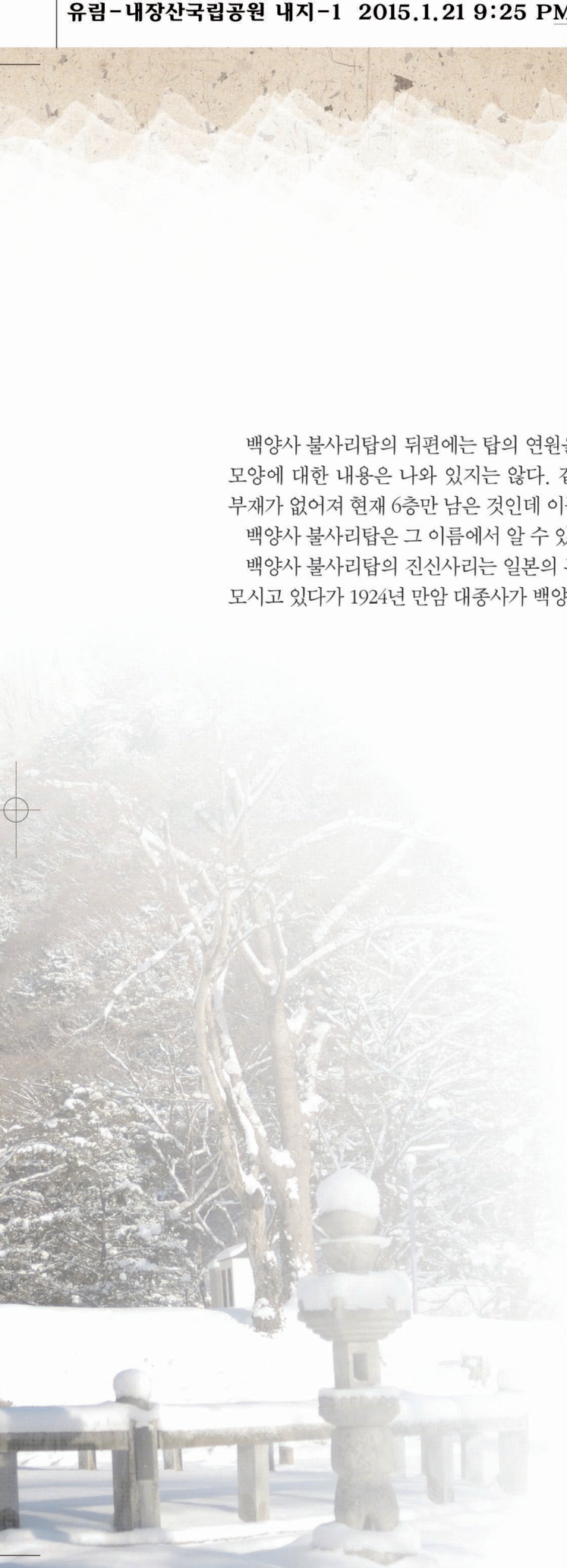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5 PM 페이지87 Mac1 CTP-2400-CMYK

백양사 불사리탑의 뒤편에는 탑의 연원을 밝히는 불사리탑비가 세워져있는데 탑의 층수와 모양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다. 같은 짝수 탑인 선운사의 6층 석탑의 경우 석탑의 부재가 없어져 현재 6층만 남은 것인데 이는 백양사 불사리탑과는 다르다.

백양사 불사리탑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탑이다.

백양사 불사리탑의 진신사리는 일본의 홍법대사가 천축에서 가져온 것으로 백용성스님이 모시고 있다가 1924년 만암 대종사가 백양사에 이를 봉안하여 탑을 세웠다고 한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5 PM 페이지88 Mac1 CTP-2400-CMYK

백양사 암자(白羊寺 庵子)

백암산 자락에 백양사 소속 암자는 운문암, 약사암, 물외암, 영천암, 청류암, 천진암, 금강암, 서향암, 청량원, 지장암, 묘연암의 총 11개 이다.

이 암자들은 대부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창건되었고 수많은 고승들이 이들 암자를 거쳐 갔다.

고불총림 백양사 선원인 운문암은 우리나라 3대 선원 중의 하나로 스님들이 수행하는 도량이다. 이곳은 부처의 경지에 이르려는 수행자들이 구름같이 모여든다고 하여 운문암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백양사 약사암



백양사 운문암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6 PM 페이지89 Mac1 CTP-2400-CMYK

약사암과 영천암은 인접하여 있다. 영천암은 굴속 바위틈에서 나오는 물이 신령스럽게 약효가 있어 영천암(靈泉庵)이라 하였고, 그 옆에 약사여래를 모시는 약사암을 세웠다.

청류암의 청류(淸流)는 사람의 마음과 같은 청정한 맑은 물을 의미하며 이곳에 수행하는 스님들이 언제나 청정무후(淸淨無後)한 마음으로 선(禪)에 들어가라는 뜻으로 지은 것이다. 청류암은 만암스님이 근대적인 승려교육기관인 광성의숙(廣成義熟)을 세운 곳이기도 한데, 스님들이 교학과 참선뿐만 아니라 국어, 국사, 수리학 등 현대학문도 배우게 하였다.

천년고찰 백양사를 품은 백암산 이야기

약사암 · 영천암 약수이야기

약사암과 영천암은 광여도 · 여지도 등 다양한 고지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유서 깊은 암자이다. 영천암과 약사암의 연원과 관련된 영천약수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영천암은 영천굴에 세워졌는데 이 영천굴에는 쌀이 나오는 바위가 있었다. 매일 2명분의 쌀이 나왔는데, 하루는 손님이 찾아와 쌀이 부족하게 되었다. 쌀을 받으러 온 동자승은 바위 뒤에 쌀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부지깽이로 쌀이 나오는 구멍을 파보았다. 그러나 나오라는 쌀은 안 나오고 피가 나왔다고 한다. 이후 피가 그친 곳에서 약수가 나왔는데 이 약수를 영천이라고 하였다. 영천약수는 특히 위장병에 특효가 있다고 전해진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6 PM 페이지90 Mac1 CTP-2400-CMYK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6 PM 페이지91 Mac1 CTP-2400-CMYK

호남 곡창지대의 수호신 입암산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6 PM 페이지92 Mac1 CTP-2400-CMYK

호남 곡창지대의 수호신 입암산

입암산은 전라남도의 최북단에 위치하여 북쪽에서 전남으로 들어오는 관문에 해당하는 산이다. 북쪽은 전라북도와 도계를 이루면서 북동쪽으로 내려오는 호남정맥이 분기되어 서쪽으로 영산북기맥을 형성하면서 장성군의 서쪽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보여준다.

입암산은 갓 입(笠)에 바위 암(巖), 즉 갓바위에서 그 이름을 얻게 된 산으로 멀리서 보면 마치 초립(갓)을 쓰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입암산이란 명칭은 고려사에 처음 나오는데, 고려시대 이전부터 사용된 말로 생각된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6 PM 페이지93 Mac1 CTP-2400-CMYK

입암산은 그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고대부터 군사적 요충지로 생각되었는데 전라남북도를 나누는 경계이자 주변에 정읍, 장성, 고창, 순창 등의 평야지대를 아우르고 있어 호남의 곡창지대를 지켜낸 산이 아닐 수 없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6 PM 페이지94 Mac1 CTP-2400-CMYK

갈재와 새재 입암산의 고개길

까마득한 위령 고개 푸른 구름 위에 있어
남쪽 북쪽 바람 안개 예서 서로 나뉜다네
천리 밖의 관산 오자 고향 땅이 멀거니와
몇몇이나 고향 보며 석양 속에 말 멈추리
(김상헌「장성위령」)

입암산은 호남평야와 나주평야를 갈라놓은 전남북 경계 지역에 있으며 남북을 잇는 국도 · 철도 · 고속도로가 모두 이 산 서쪽을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은 근대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는데, 입암산 서쪽의 교통로인 갈재와 동쪽의 교통로인 새재가 바로 그러한 곳이었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6 PM 페이지95 Mac1 CTP-2400-CMYK

갈재는 노령 혹은 위령이라고도 하는데, 모두 '갈대고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고갯길을 따라가다 보면 노아(갈애)의 전설이 깃든 갈애바위를 볼 수 있는데 그 전설을 통해서도 이 길이 예부터 한양으로 가는 중요한 교통로이자 호남으로 임관하는 관리들이 지나쳐가는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옛 노령의 고갯길에는 바위에 새긴 송덕비도 전해지고 있다.

갈재가 한양으로 가는 주요 교통로라고 하면 새재는 한양으로 가는 소로였다. 새재는 노령에 비해 좁은 길이어서 대규모 행렬이 지나갈 수 없는 길이었지만 한양으로 가는 봇짐장수나, 과거를 보러가는 선비들이 힘들이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친숙한 길이었다. 새재 정상에는 지금도 주막터가 남아있어 민초들의 고단한 노정의 벗이 되어주었던 옛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갈재와 새재 이 두 가지 고갯길은 입암산이 옛날부터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지이자 군사적 요충지임을 알려주고 있다.



갈재에 남아있는 송덕비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6 PM 페이지96 Mac1 CTP-2400-CMYK

입암산 사람들의 옛모습 - 산판

입암산은 다양한 식생을 자랑하지만 주된 수종은 갈참나무로 대표되는 참나무과의 수목들이다. 이러한 식생의 특징은 입암산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입암산 주위에는 입암산성과 관련되어 마을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기록에 남아있는 마을은 많지 않다. 1914년의 조사에 의하면 작은 마을 10개가 존재 하였다고 전해지는데 주로 소규모 농업과 임산물을 채취하며 살아갔다. 그리고 입암산의 참나무를 이용하여 산판을 하고 숯을 만들어 내다 팔았다. 그래서 입암산 곳곳에는 숯을 구웠던 숯가마터와 산판길이 남아있다. (사진 : 입암산성 산판길)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6 PM 페이지97 Mac1 CTP-2400-CMYK

입암산의 산판을 특히 일제 강점기에 집중되었는데 해방무렵까지 일본인 소림소삼랑(小林小三郎)이 산판 일을 하였고, 해방 후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무렵인 1970년대까지 입암산에는 산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입암산 등산로 입구 개울가 바위에는 1929년 소림소삼랑(小林小三郎)과 우편국장이었던 송정행삼랑(松井幸三郎)이 새긴 불망비가 있는데 국권을 빼앗긴 시대 입암산의 생태자원이 수탈되었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사진: 송정 행삼랑 각자)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6 PM 페이지98 Mac1 CTP-2400-CMYK

입암산과 남창골 선비

입암산의 남쪽마을은 남창(南倉)이라고 부르고 북쪽마을은 북창(北倉)이라고 하는데 이 두 지명은 모두 입암산성의 군기 창고를 두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남창골은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았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선시대 선비인 하곡 정운룡(鄭雲龍 : 1542 ~ 1593)과 자하 변경윤(邊慶胤 : 1574 ~ 1623)이 은거한 것으로 이름이 높다.

하곡 정운룡은 임진왜란 시 장성 남문에 의병청을 설치하고 오천 김경수(金景壽 : 1543 ~1621), 장성 현감 이귀(李貴 : 1557 ~ 1633), 금강 기효간(奇孝諫 : 1530~1593), 오봉 김제민(金齊閔 : 1527~1599) 등과 의병을 모아 각처에서 왜적과 싸웠다. 정운룡은 남창골 정자동에 살았는데, 마을의 이름도 그의 성씨가 연원이 되었다. 정운룡이 입암산 몽계폭포 부근에 하곡석실이라는 집을 짓고 학문에 정진하여 그곳을 하곡동이라 부른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6 PM 페이지99 Mac1 CTP-2400-CMYK

자하 변경윤은 망암 변이중의 아들로 광해군(1575~1641) 시절에 구언령(求言令)을 내리자, 교서관의 저작이란 말직으로서 당시 국정의 잘못된 점을 낱낱이 고하였고, 집권대신들이 인목대비를 폐위하려고 하자 이를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려 미움을 사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는 지금의 입암산 골짜기에 은거하여 평생을 성리학설 연구와 후진 양성에 전념하였는데, 그래서 그곳의 지명이 그의 호를 따서 자하동이 되었다고 한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6 PM 페이지100 Mac1 CTP-2400-CMYK

근대 종교의 발생과 입암산

정읍의 내장산이 왕조실록을 피난시킨 산이라며, 입암산은 근대의 다양한 종교들과 관련을 맺은 종교의 성지였다. 먼저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를 피해 피난 온 교우들에 의해 입암산 주변에 일찍부터 교우촌이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천주교 공소가 입암산 곳곳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정읍을 중심으로 발생한 신흥종교들은 입암산 자락을 그 수용지로 하여 발전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일세를 풍미했던 보천교를 비롯해서 보화교와 같은 신종교가 발생 수용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경정유도, 하늬재교, 대덕전과 같은 종교가 자리하여 종교와 깊은 관련을 맺게 되었다. (사진: 입암산성 북문지)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6 PM 페이지101 Mac1 CTP-2400-CMYK

입암산 깊숙한 곳 입암산성 내에는 경정유도를 믿었던 교인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갓을 쓰고 상투와 댕기를 맨 이들은 유교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오다가 한국전쟁과 가뭄, 흉년으로 하나둘 다른 지역으로 이거하고 마지막 한 가구가 1980년 입암산을 떠나면서 지금은 그 흔적만이 남아 있다.



입암산성 내 경정유도를 믿었던 성내리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6 PM 페이지102 Mac1 CTP-2400-CMYK

입암산 문화유산 분포도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6 PM 페이지103 Mac1 CTP-2400-CMYK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6 PM 페이지104 Mac1 CTP-2400-CMYK

호국의 정신이 깃든 입암산성

입암산 정상으로부터 능선을 따라 이어져 있는 입암산성은 전형적인 포곡식(산의 능선에 따라 쌓은) 석성이다. 예로부터 정읍과 장성의 경계인 입암산은 지형이 높고 험하기로 유명한데 특히 입암산성 지역은 외부에서는 살펴보거나 쉽게 찾을 수 없는 천연의 요새지역이었다.

입암산성이 처음 축성된 것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지형적 원인으로 삼한시대부터 산성이 축성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다. 또 후삼국시대 후백제의 견훤이 왕건에게 나주지방을 빼앗긴 후 후방으로부터 쳐들어오는 고려군을 막아내는 전략적 요충지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6 PM 페이지105 Mac1 CTP-2400-CMYK

입암산성이 처음 기록에 보이는 것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인데 고려 고종 43년(1256) 장군 송군비(宋君斐)가 몽고 침략군에 맞서 승리를 거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도 적상산성, 금성산성과 함께 호남의 3대 산성으로 수축과 개축을 거듭하였고 정유재란(1597~1598) 때에는 윤진(尹軫:1548~1597)이 의병을 모아 왜병에 대항해 끝까지 항쟁하다 순절한 곳이기도 하다. 이후에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수축한 기록이 보이고 있어 조선시대 군사요충지로 인식되었던 곳이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6 PM 페이지106 Mac1 CTP-2400-CMYK

입암산성이 폐성 된 시기는 언제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1894년 갑오개혁 시기를 전후하여 근대적 군사제도가 도입되어 폐성화 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 1907년 일제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면서 입암산성의 실질적인 군사적 역할도 사라지게 되었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6 PM 페이지107 Mac1 CTP-2400-CMYK

입암산성 약사

▶초축연대 : 미상(삼한시대로 추정)

▶ 고려시대
- 고종43년(1256) : 송군비 장군이 몽고군과 싸워 승리

▶조선시대
- 태종10년(1410) : 교룡산성(남원), 금성산성(담양), 이흘림산성(완주), 수인산성(강진), 금성산성(나주)와 함께 수축.
- 세종16년(1434) : 읍성이 중요시 되면서 산성인 입암산성 폐성화 됨.
- 선조26년(1593) : 임진왜란 당시 장성현감 이귀와 윤진이 성을 수축.
- 선조27년(1594) : 산성 내에 사찰 건립.
- 선조30년(1597) : 정유재란 시 윤진, 판암이 의병을 모아 왜적과 싸우다 순절.
- 효종 4년(1653) : 장성현감 이유형(李惟馨)이 산성을 확장 개축.
- 숙종 2년(1676) : 장성부사 홍석구(洪錫龜)가 산성을 확장 개축.
- 영조18년(1742) : 산성내 윤진 순의비 건립.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6 PM 페이지108 Mac1 CTP-2400-CMYK

▶성의 규모

- 둘레 : 약 5,200m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5,620m로 기록.
- 높이 : 지형에 따라 1~3.7m 내외.

▶성곽시설물

- 성문 : 문헌에 따라 다르게 표시되어 있으나 현재 남문지와 북문지 1개씩이 남아 있다. 특히 남문은 성곽의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 암문 : 암문은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비밀 문으로 입암산성에는 현재 서측 · 북측 · 동측의 3개의 암문지가 발견되었다.
- 장대 및 포루: 장대는 먼 곳을 살펴볼 수 있게 만든 높은 건축물로 주변을 경계하거나 전쟁 시 지휘를 하기위하여 만들었다. 특히 포대를 갖추고 있는 곳을 포루라 부르기도 한다. 입암산성의 장대 및 망대지는 동서남북 4개의 장대지, 입암망대지와 망덕봉 망대지의 6개소의 터가 남아 있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6 PM 페이지109 Mac1 CTP-2400-CMYK

▶성내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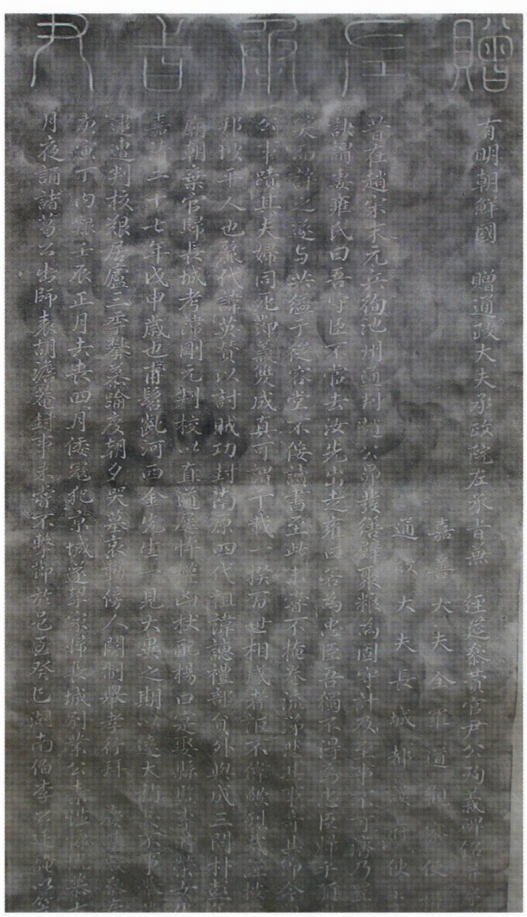
- 관아터: 문헌에 의하면 별장소(別將所)혹은 진헌(鎭軒:진의 동헌) 등을 표현되어 있는 관아건물이 기록되어 있고 관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터가 발견되었다.
- 창고터: 입암산성은 주변의 속읍(屬邑)의 군량미를 저장하는 군향고(軍餉庫) 7개소와 무기를 보관하는 군기고(軍器庫) 5개소 소금을 저장하는 염산고(鹽山庫)와 된장, 간장 등 장을 저장하는 장고(醬庫)가 있었다고 한다.
- 사찰터: 문헌에 의하면 안국사(安國寺)를 비롯한 절과 암자가 5개소 있었으며 특히 안국사는 승병장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6 PM 페이지110 Mac1 CTP-2400-CMYK

윤진순의비(尹軫殉義碑)

윤진순의비는 영조 18년(1742)년 장성부사 이현윤이 세운 것으로 전라도관찰사 권적이 글을 짓고 이현윤 자신이 글씨를 쓴 비석이다. 비석은 화려한 장식 없이 단순한 지붕돌을 얹어 만들었으며 지대석은 땅속에 묻혀있다. 앞면과 뒷면에 전서(篆書)체로 증좌승지윤공순의비(贈左承旨尹公殉義碑銘)라는 비명이 맨 윗부분에 쓰여 있고 내용은 해서(楷書)체로 썼다. 조각수법이 화려하거나 뛰어나지 않지만 정유재란 때 순절한 윤진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역사적 가치가 뛰어나다 할 수 있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6 PM 페이지111 Mac1 CTP-2400-CMYK

입암산성과 윤진의 나라사랑

윤진(尹軫)은 조선시대 문신으로 자는 계방(季邦)이고 호는 율정(栗亭)으로 어려서부터 학문에 정진하여, 일찍이 김인후 선생이 후에 큰 인물이 될 것이라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나 입신양명에 관심이 없어 과거를 보지 않았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장성으로 내려와 김경수(金景壽)를 맹주로 한 장성 남문창의에 참여하여 종사로 활약하였고 왜적이 장차 전라도로 침입하여 올 것을 예견하고, 전라도관찰사 이정암(李廷馣)에게 입암산성(笠巖山城)의 수축을 건의하였으며, 이 건의가 허락되어 윤진은 입암산성 수축의 책임을 맡아 군량을 비축하기 위한 창고를 건축하고 포루를 새로 마련하여 왜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선조 30년(1597) 왜적이 남원을 유린하고 장성에 침입하자, 주변의 지방관들은 모두 달아나고 친척들도 피난할 것을 권하였지만 듣지 않고 백여 명의 의병을 지휘하여 입암산성을 지켰으나 산성의 함락과 함께 순국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조정에서는 윤진을 좌승지(左承旨)로 추증하였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6 PM 페이지112 Mac1 CTP-2400-CMYK

임시득 별장비(林始得 別將碑)

이 비석은 1878~1879년 입암산성에서 별장직을 담당한 임시득의 공덕비이다. 1879년에 비를 세웠으나, 비신 가운데가 부러진 상태로 방치된 것을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에서 수습하였다.

임시득은 종3품의 고급 무관으로 창덕궁 위장, 임자도 첨사 등을 역임하였다. 일반적으로 소모별장은 종9품의 벼슬아치가 맡으나, 입암산성은 그 중요도에 맞게 정3품의 고위직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입암산성 특별전에 전시중이고, 2014년 비석을 현재의 모습으로 보수하였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6 PM 페이지113 Mac1 CTP-2400-CMYK

입암산성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켰을까?

입암산성은 장성 · 광주 · 나주 · 고창 · 정읍 · 태인 등 주변의 곡창지대를 속현으로 둔 대규모의 산성이었다. 지휘관인 별장 1명과 다섯 개의 절을 두고 승장 1인을 두었으며, 군량창고 · 병기창고는 물론 장기전을 대비한 소금 창고와 된장창고도 있었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의 현종 4년(1664) 기록을 보면 입암산성의 보유해야하는 군량미는 33,700석인데 현재 80kg 한가마를 기준으로 보면 약 67,400가마니에 해당한다. 이것은 대략 6만 명의 군사가 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이라 할 수 있다. 입암산성에 주둔한 군사는 정확하지 않지만 상시 10만명의 군사가 주둔 할 수 있는 규모로 생각된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6 PM 페이지114 Mac1 CTP-2400-CMYK

입암산성 보루성(笠巖山城 堡壘城)

입암산의 갈림길에서 입암산성을 지키기 위한 보루성으로 갈림길 능선부에 성곽과 일정한 공지가 있어 보루의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루 주변에 30m정도의 성곽이 남아있어 보루와 주변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였던 시설로 보인다. 입암산성 보루성은 정확한 축성연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지표상에 옹기와 분청사기 편이 수습되어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보루성으로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6 PM 페이지115 Mac1 CTP-2400-CMYK

입암산성의 다양한 성곽시설

▶ **입암산성 익성** : 입암산성의 본성에 연결되어 있는 날개성(익성)으로 동쪽에는 동암문에서 장성새재를 거쳐 정읍의 삼성산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서쪽으로는 입암산 등산로를 따라 시루봉을 지나 갈재까지 연결되어 있다. 익성의 대부분은 자연지세를 이용하여 능선을 따라 토성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며, 몇몇 곳에 보루의 모습도 보인다.

▶ **입암산성 옹로** : 입암산성으로 들어오는 적들을 막아내기 위한 유입로로 일정구간 삭토하여 인위적인 길을 만들었다. 입암산성 아래 계곡을 따라 이어져 있는데 지금도 사람이 숨어 있으면 밖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곳도 있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6 PM 페이지116 Mac1 CTP-2400-CMYK

입암산성 저수보(笠巖山城 貯水堡)

입암산성 성내에는 설치되어 있는 저수보로 모두 7개의 저수보를 갖추고 있다. 저수보에 대한 기록은 1750년 제작되었다는 입암산성도에서도 보이는데, 이를 통해 입암산성 저수보가 전쟁시 필요한 수량을 확보하는 것과 유사시 해자(垓字)의 역할을 하는 방어시설임을 알려준다.

성내에 저수보를 갖추고 있는 산성은 많지 않고 특히 입암산성의 경우처럼 거대한 저수보 7개를 갖추고 있는 경우는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입암산성의 저수보는 큰 것은 길이가 80m, 높이 10m, 폭 7m로 거대한 석축 및 토축으로 만들어져 오랜 기간 보수와 수축을 거듭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남은 것으로 생각된다.



유림-내장산국립공원 내지-1 2015.1.21 9:26 PM 페이지117 Mac1 CTP-2400-CMYK

저수보와 입암산성 습지

입암산성 내에 위치한 입암산성 습지는 입암산성의 역사와 그 연원을 같이한 습지이다. 입암산성은 삼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축성된 산성으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성내에는 7개의 저수보가 축성되어 있었다. 이 저수보는 유사시에는 남문으로 쳐들어오는 적에게 수공을 펼치는 시설이자 해자 역할을 하였으며, 평상시에는 산성에 주둔한 군사들의 식수를 공급하기도 하였다. 이 저수보와 지형적 특성 등이 합쳐져 일찍부터 입암산성에는 습지가 조성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산성의 폐성 이후 이곳에 사람들이 들어와 논밭으로 사용하면서 습지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흉년과 가난으로 하나둘 사람들이 떠나고 1980년대 마지막 거주민이 떠나면서 논과 밭은 다시금 습지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입암산성 습지는 대규모의 산지습지면서 입암산성과 함께 그 연원을 같이한 보기 드문 습지이다.

